

토론문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2025 서울



발행처: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편집: 아누파마 세카르 (정책 및 참여 국장)

교정: 메러디스 오켈 (영어), 솔레다드 에르난데스 토클 - 라도수르 (스페인어)

번역: (스페인어/영어) 마리아 파스 모레노

(한국어/영어) 신혜린

디자인: 파이카

초판 발행: 2025년 4월, 대한민국 서울

ISBN: 978-0-9871098-2-8

©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본 보고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CC BY-NC 4.0)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함: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복제, 배포, 전시 조건:

- 저작자 명시
- 상업적 용도의 사용 금지
- 보고서의 변경, 변형, 수정 금지

권장 인용 형식:

토론문: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2025,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Discussion Paper: 10th 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2025,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Sydney, NSW.)

면책 조항:

보고서 작성자: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하즈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올라노스키 박사(Dr. Jazmín Alejandra Beirak Ulanosky)(스페인), 사라 압두 부슈라(Sarah Abdu Bushra)(에티오피아), 파울라 카(Paula Carr) 및 하니코 테 쿠라파(Haniko Te Kurapa)(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마우리시오 델핀(Mauricio Delfin)(미국/페루), 라르스 에베르트(Lars Ebert)(벨기에), 마르셀라 플로레스 멘데스(Marcela Flores Méndez)(멕시코), 이준 공학박사(Dr. Zune Lee)(대한민국), 니산트 샤 박사(Prof. Dr. Nishant Shah)(홍콩특별행정구, 중국/인도/네덜란드), 마리추 G. 텔라노(Marichu G. Tellano)(필리핀)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고서 상의 오류, 누락사항, 기재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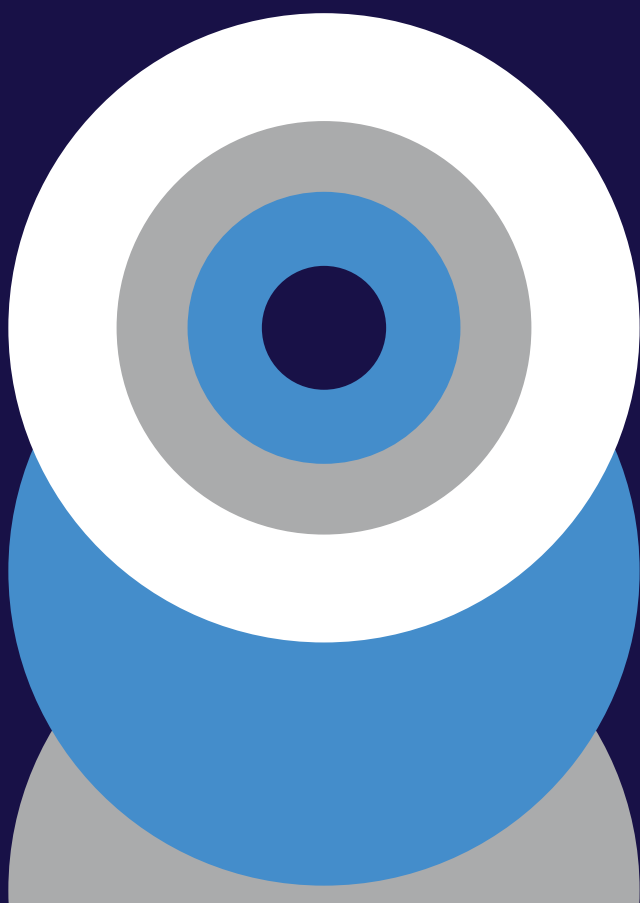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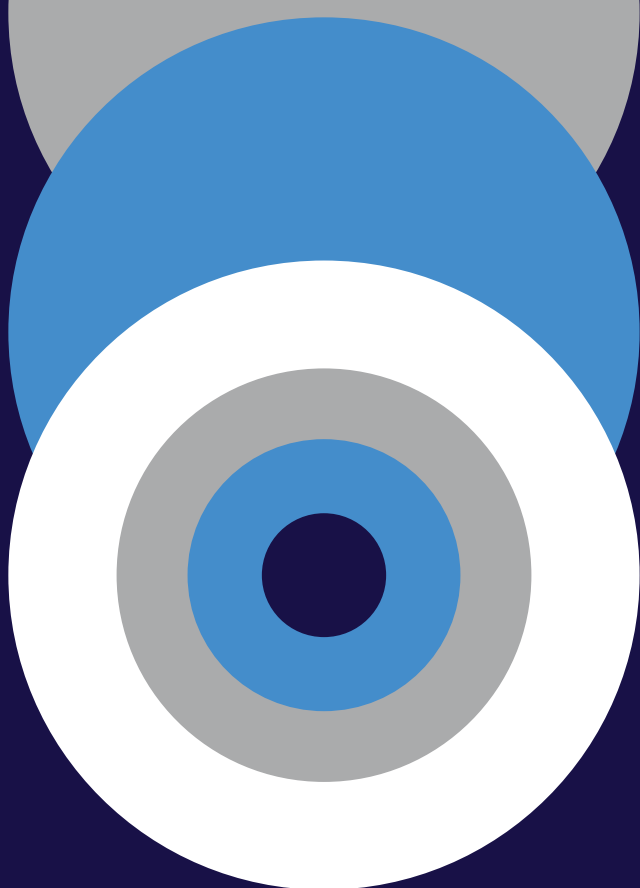
IFACCA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은 전 세계 예술위원회 및 문화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70개국 이상의 회원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회원 기관과 그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호주 국세청에 소득세 면제 자선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회사명은 International Arts Federation Services Pty Ltd이며, 호주 사업자 등록번호(ABN)는 19 096 797 330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1973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005년, 예술위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예술위는 다양한 예술분야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며,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와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통해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개인, 민간, 공공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현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기록원,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등 국내외 우수 예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 2025 서울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Contents

6	환영사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8	서문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사무총장
19	권리의 보장, 권력의 재분배, 그리고 미래 구상을 위하여 하즈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올라노스키, 박사 (스페인)
25	생성형 AI와 서사 간의 갈등: 인간의 의도와 기계의 논리 니산트 샤, 박사 (홍콩특별행정구, 중국/인도/네덜란드)
31	한국의 ACTscape: 예술, 문화, 기술(ACT)의 색다른 확산과 융합(diffusion) 이준, 공학박사 (대한민국)
37	세계만들기(worldmaking)를 향하여 사라 압두 부슈라 (에티오피아)
43	스펙트럼으로서의 참여 개념 마우리시오 델핀 (미국/페루)
49	마오리의 관점으로 본 원주민 권리 보호, 지식 체계 인정, 리더십 증진 파울라 카, 하니코 테 쿠라파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57	미래를 엮어가는 여정: 과거를 기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다 마리추 G. 텔라노 (필리핀)
63	실천에서 정책으로, 그리고 다시 실천으로: 유럽에서의 문화민주주의 증진 라르스 에베르트 (벨기에)
69	저항을 통해 세계를 다시 만들어나가기 마르셀라 플로레스 멘데스 (멕시코)
74	참고문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13달러에 불과했던 197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8위의 문화콘텐츠 시장과 노벨문학상 수상, 한류라고 불리는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작은 나라에 몰아친 정치적 격랑과 경제적 세계화는 미리 알고 대비하기에는 불가해한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더구나 기술발전이 선사한 변화와 충격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떼어놓을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문화정책도 부지런히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충했고, 삶의 질을 추구하며 문화향유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민주화 물결이 선사한 표현의 자유는 창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가 개방되고, 문화산업이 육성되었으며 예술인의 권리보장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확충까지 정책 범위가 확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예술과 예술가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한국 국민이 향유하고 주고받는 문화적 영향력 또한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 뿌리기 시작한 작은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세계를 흐르는 이 때, 다음 50년을 그리는 예술위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023년 예술위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 아래 현장 예술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예술인이 자율성을 발휘하기 쉬운 구조로 사업을

개편하고, 예술위 운영시설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예술후원 가치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통해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기업의 예술 후원에 대한 인식을 높여왔습니다.

한편 단시간 내 압축적으로 성장한 한국은 정치, 경제, 계층, 세대,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AI를 위시한 디지털 혁신이 끼칠 영향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장벽을 넘어, 전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밀려오는 지금, 예술위는 문화예술의 역할과 한국을 넘어선 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록, 서로의 고유함을 인지하고 다름을 이해하며, 공통관심사를 이끌어내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한국이 아닌 세계와 함께 대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대화의 역할과 그 대화를 가능케 할 예술의 역할을 상상하는 가운데, 오늘 5월, 격동 속에서 성장한 대한민국 서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9차 총회에서, 모두가 공감했던 다중위기(polycrisis) 속에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했고, 더 자주 그리고 더 폭넓게 대화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유례없는 변화의 물결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이 전 세계 문화예술계 동료를 맞이할 대화의 장이 된 것은

필연이자 축복입니다. 강렬하고, 복잡하고, 빠르고, 압축된 양의 변화를 살아내는 한국의 모습은, 서로 얽힌 미래를 예측 하는데 영감과 자극이 되어 미래에 문화가 자리할 곳을 창조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9편의 글에서는 다가올 변화와 부상하는 갈등에 대비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통찰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의 대화 스펙트럼을 가능할 수 있게 선뜻 물꼬를 터주신 10명의 저자와 공동주최기관인 IFACCA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5년 예술위는, 정부의 문화정책 결정 권한을 예술 현장에 이양하는 체제 전환 후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를 지칭하던 자리를, ‘우리의 대화’로 바꾸어 환영사의 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술은 세계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임을, 여러분 모두 믿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술이 세상을 바꾸며

삶들을 바꾼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그 진실이 바로 우리 삶의 끈이며

우리 세계의 힘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 끈과 힘이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예술이 이 세계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선언문 활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미래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

국제 평화의 훼손과 기후 재앙, 사회적 분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면서 세계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2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9차 문화예술세계총회가 도출한 결론의 핵심으로, 우리는 불안정한 환경에 맞선 인정과 보호를 통해 문화적 역동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숙고했다. 아울러, 문화가 인간적 가치의 핵심 요소라는 전제 하에 예술과 창의성, 문화적 표현을 배양하는 문화창의부문(CCS: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바탕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논의로부터 2년이 흐른 시점인 2025년 5월에 개최된다. 작금의 문화가 도구화, 고립, 저평가, 상품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다층적 위기에 대한 논의의 후속 작업으로서 긴급 조치의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 인류가 지정학적 국제 정세의 급변, 물가 상승, 기후 위기 및 환경 훼손, 대화와 교류를 저해 또는 부정하는 양극화 현상 등의 문제로 신음하며 미래 비전의 정립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세계의 관심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AI(GenAI) 등 기술 부문에서의 발전에 치중되어 왔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곳곳의 문화정책 입안자들뿐 아니라 선거 철마다 경쟁적 요구에 시달리는 각국 정부, 공공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시민들,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가 인간적 가치의 핵심 요소라는 전제 하에 예술과 창의성, 문화적 표현을 배양하는 문화창의부문(CCS: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바탕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문화의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상황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2022 몬디아컬트 선언(MONDIACULT Declaration for Culture)이 촉구한 바와 같이, 유엔 회원국들이 2030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 차원에서 문화관련 독자 노선을 수립하고자 도출한 합의는 여러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문화 부문을 초국가적·지역적 맥락을 포괄하는 글로벌 의제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상기 합의가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2024년 9월)에 포함되지 못했기에, 각국의 문화정책 부문에서 이와 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절실하다.

이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문화예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진정한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혁신 주체로서의 자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의 보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선도해 왔기에, 올해로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공동 주최자 역할을 맡은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총회 프로그램은 미래에의 대비를 위한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 발전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아니라 향후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에, 과연 어떠한 정보나 서사, 지식 체계가 기계학습 데이터로 쓰이고 있으며, 누가—또는 무엇이—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추동하며 형성하는 언어, 문화적 코드, 세계관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열린 토론의 부재와 분열의 지속 와중에 해결 방안의 구상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합의와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문화정책이 부지불식간에 이 같은 분열을 오히려 조장해 온 것은 아닐지, 오늘날의 생태계가 직면한 위협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의 문제들을 지금의 디지털 공간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국제 공동체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본 토론문은 문화와 문화창의부문(CCS)에 영향을 미치는 상기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기술과 인공지능의 새롭고 흥미로운 측면들뿐 아니라 그 식인적(anthropophagic) 특성, 협의 도출과 참여 장려를 위한 제언, 다양한 서사와 세계관을 포괄하는 미래보장을 위해 필요한 주체성의 유형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본 토론문은 IFACCA가 2024년에 출간한 보고서

「공공재로서의 문화: 정책 논의에서의 역할 탐색(Culture as a Public Good: Navigating its Role in Policy Debates)」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을 반영한다. 그 내용은 문화를 상징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양면에서 공히 인정할 필요성, 문화의 상품화(commercialization) 지양, 문화적 역량(cultural capabilities)의 개발을 통한 회복력(resilience)과 적응력(adaptivity) 강화, 체제적인 불평등의 해소와 핵심 추진력으로서의 다양성 수용, 문화 서사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천 가능하고(actionable), 이해하기 쉬우며(understandable), 포용적인(inclusive) 방식의 문화정책 수립 등과 같은 주요 원칙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 열 분을 초청하여 상기 쟁점들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정부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또 취해야 할 조치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파울라 카(Paula Carr)와 하이코 테 쿠라파(Haiko Te Kurapa)(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라르스 에베르트(Lars Ebert)(벨기에); 사라 압두 부슈라(Sarah Abdu Bushra)(에티오피아); 니샨트 샤(Nishant Shah) 박사(인도); 마르셀라 플로레스 멘데스(Marcela Flores Méndez)(멕시코); 마우리시오 델핀(Mauricio Delfin)(페루); 마리추 G. 텔라노(Marichu G. Tellano)(필리핀); 이준(Zune Lee) 공학박사(대한민국), 하즈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올라노스키(Jazmín Alejandra Beirak Ulanosky) 박사(스페인)가 초청 저자로 참여한다.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원주민 및 문화 지도자, 예술가 및 문화 종사자로서의 여러 관점과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미래 설계를 위해 숙고할 문화적, 지리적 맥락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협력과 조언에 감사드린다. 지금부터 언급할 아홉 편의 글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한 저작이지만, 그 목소리를 함께 모음으로써, 2025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공통 관심사를 조망하고 보다 깊이 있는 사유와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문화정책 입안의 당면 과제: (악)순환의 함정

문화는 정책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종종 소모품, 상품, 부차적인 요소, 내지는 심지어 사치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베이라크(Beirak)는 문화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공공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오늘날의 문화정책이 특권층을 우대함으로써 다수의 폭넓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즉, 정책적 행동을 통해 당면 문제들을 해소하기는 커녕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라크(Beirak)는 나아가 기존의 정책적 틀이 문화 접근성과 참여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체제적인 격차를 더 벌려 왔다고 주장한다. 입안자들은 문화정책의 운영과 승인 과정 상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이 더해 가고 기존에 성공한 정책조차 위기에 처한 현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안과 부문을 아우르는 의견을 내기 위해 서로 경쟁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문화적 우선순위, 정책 과정, 정책 주체의 재구상을 위한 정책 리부팅(policy reboot)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적 틀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인구 구성과 대중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무시 또는 억압당해왔던 소수자들의 의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안주하게 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카(Carr)와 테 쿠라파(Te Kurapa)는 마오리 예술 및 문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특히 테

레오 마오리(te reo Māori, 마오리어)의 복원과 마타리키(Matariki, 마오리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노력을 문화적 저항의 행위로 평가한다. 그런 한편, 이 같은 긍정적 변화를 저해하는 최근의 조치들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에베르트(Ebert)는 문화 자체가 분열과 갈등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문화가 대화와 화해의 참여적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문화가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균열의 심화가 아닌 치유를 위해 더욱 포용적이고 유연하며 대응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이 악순환과 모순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포용하되 휘둘리지 않는 인간 중심적 기술의 지향

플로레스 멘데스(Flores Méndez)는 기술의 현실을 고찰하며 인터넷 2.0이 꿈꾸었던 수평성, 민주주의, 연대의 플랫폼이 불투명성(opacity), 감시(surveillance), 데이터 착취(data extraction)의 관행으로 퇴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인간적 교류의 상품화가 협업을 약화시키고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인간중심적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적 도구들에 오히려 휘둘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멘데스는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공생(conviviality) 개념을 끌어와, 기술이란 인간의 자율성과 사회 정의의 진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끝없는 소비 중심의 혁신이 아니라 개인과 도구, 사회 간의 균형 잡힌 공동체적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관점은 체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공동 책임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문화는 이를 위한 공동체적 상상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멘데스는

기술이 (드론이나 환경 파괴와 같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돌봄, 협력,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샤(Shah)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문화적 서사와 실천에 미치는 교란적(disruptive) 이면서도 변혁적인(transformative) 가능성을 논의한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일상과 ‘행동 양상(modes of doing)’의 저변에서 편의를 위한 도구로 작동하기에, 우리는 그 붕괴나 오작동, 내지는 간섭이 있을 때 비로소 기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샤에 의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기술을 대체함으로써 사용자의 습관에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 같은 기술적 교란(disruptions)은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흥분과 불안, 정보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한다. 기계 주도의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보가 입력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하고, 또 인간과 기계가 각각 생성한 정보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준(Lee)은 한국적 맥락에서 학제 간 연구와 창작의 가능성을 논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그로 인한 자연-인간-기계의 공진화(coevolution)에 주목한다. 인간, 기계, 자연을 아우르는 협력적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의 협력 하에 생성되는 혼성적 지식(hybrid knowledge)의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대 인간 뿐 아니라 인간 대 비인간(non-human) 간의 관계성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는 선불교, 도교,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전통 사회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준의 주장은 플로레스 멘데스(Flores Méndez)의 이야기와 그 결을 함께 하고 있다. 멘데스는

기술이 지배(domination)와 소외(alienation)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고양과 협력 촉진의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억압적인 시스템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의 웰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샤(Shah) 또한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협력과 문화 간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인간의 가치, 집단적 행동, 상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서사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사와 지식 체계를 반영하여 인간의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 관점과 비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술 철학(philosophy of technology)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생태계의 이중성: 다양한 생동 문화(living cultures)와 역동적인 문화창의부문(CCS)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의 개발과 구상을 위해서는 문화의 이중적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상징적 차원을 지니는 동시에 실질적인 산업 부문이기도 한 문화의 두 측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문화란 시장, 통계, 디지털 행태 등을 통해 한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문화창의부문(CCS)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문화를 인류의 본질적 요소이자 다 함께 공유하는 가치의 척도로서의 공공재, 공동재, 사회적 재화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지표만을 통해 문화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특히 경제적 가치 중심의 접근에 천착한다면 문화를 결핍 모델(deficit model)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화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¹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의 개발과 구상을 위해서는 문화의 이중적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상징적 차원을 지니는 동시에 실질적인 산업 부문이기도 한 문화의 두 측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와 문화창의부문(CCS)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하고 변혁적 실천(transformative practices)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 보고서 「지속가능성의 위기? 독립 예술·문화 노동자의 노동 환경 조사(A Crisis of Sustainable? Examining Working Conditions for Independent Arts and Cultural Workers)」(IFACCA, 2022, p.9)²에서 보듯이,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문화 노동이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문화 노동자가 사회의 당당한 노동인력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문제, 즉 지속적인 ‘비가시성(invisibility)’에서 기인한다. 최근 들어 문화창의부문(CCS)의 중소 부문(small to medium sectors)에서 문화 기관, 기업, 예술 단체들이 줄줄이 폐업함에 따라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단체와 공동체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커리어의 출발점이자 창의적 위험을 감수한 아이디어의 실험장, 유연한 문화 교류 공간으로 기능해 왔을 뿐 아니라, 부슈라(Bushra)가 언급하듯 대안적 방식(alternative modes)을

구축하는 장(場)이기도 하다. 공동체 및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간은 그 사회문화적 역할의 측면에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역동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델핀(Delfin)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찰하며, “문화정책이 문화적 권리에 기반을 두고, 시민 참여를 그 정책 구조의 핵심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텔라노(Tellano)는 현대적 창의성과 풍부한 문화유산 간의 상호작용을 논의하며, 모든 생동하는 문화(living cultures)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개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현대적 창작 활동과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지식재산권(IP rights)과 원주민 권리(Indigenous rights)의 보호, 문화 공동체 및 예술 콘텐츠의 상업화와 오용(misappropriation) 방지를 위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들은 전부터 있어 왔지만, 오늘날 생성형 AI(GenAI)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그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권리 보유자(rightsholders)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텔라노는 세대 간 문화적 지식 전승을 위한 교육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 정부, 지역 공동체, 교육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슈라(Bushra) 또한 성찰과 교류를 위한 다층적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지역적 지식(local knowledge)과 체화된 실천(embodied practices)이 공동체 형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을 양산하며, 이를 통해 인류 전체와 자연을 향한 친족적 연대(kinship)를 확장하고, 연대

속에서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예술가, 문화 노동자, 과학자, 사상가 등의 급진적 상상력(radical imagination)이 다중적 사고(polycentric thinking spaces)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게 해 주며, 정의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통해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화적 삶과 직업으로서의 문화의 연계를 바탕으로 변혁적 실천(transformative practice)을 강조하며, 그럼으로써 공존의 대안적 방식(alternative modes of coexistence)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준(Lee)은 기술과의 관계도 측면에서 문화, 지식, 기술이 상호적으로 얽혀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자연, 인간, 기계의 공진화(co-evolution)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 연구, 창작, 교육의 기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를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기술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인간성, 주체성, 그리고 참여를 통한 격차 해소

델핀이 단언하듯이 ‘(참여) 그 자체가 곧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참여는 예술과 문화의 미래의 설계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그밖의 여러 위기 상황, 소셜 미디어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참여적 대화는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장된 양상을 띠는데, 이는 문화 분야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에베르트의 주장에서 보듯, 양극화 시대에는 단순히 기존 가치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참여적 공간이 필요하다. 참여는 정책 입안 측면에서도 핵심 과제로, 유네스코는 문화정책 영역에서 참여적 문화 거버넌스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문화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³

델핀(Delfin)은 문화정책 형성을 위한 기존 대화 기제에도 정치적 의지의 부족, 자원 및 역량의 한계, 권력 불균형,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와 같은 구조적 장벽이 잔존하며, 이 문제가 사회와 노동 부문의 양극화(polarisation)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묻는다. 익숙한 지식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논쟁이나 비판적 논의를 수행하는 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 권력 역학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장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가 시급하기에, 저자들은 작금의 세계질서를 인간중심적 가치(rehumanise) 위주로 재구성하고 주체성과 서사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샤(Shah)는 인간의 가치, 집단적 행동, 상상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야기와 서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기계적 합리성의 지배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인공지능(AI)의 영향이 생명, 노동, 언어, 사랑 등의 인간중심적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부슈라(Bushra)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갈 월드메이킹(worldmaking)의 핵심 행위로서 다양한 지식의 원천과 생산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준(Lee)은 인간의 지식이 독립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인간,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혼성적 성격(hybrid knowledge)을 지닌다고 역설한다. 델핀(Delfin)은 참여가 곧 권력 재분배의 과정이며, 시민 참여는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에베르트(Ebert)는 문화에서의 참여 시스템(participatory systems)이 민주적 참여와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문화적 자원에 접근할 권리 뿐만 아니라 문화 의제를 형성하고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베이라크(Beirak)는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시민 역량 강화가 문화의 변혁적 가능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본다. 텔라노(Tellano)는 미래 세대가 문화 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해야 하며,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포용하는 서사를 엮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Carr)와 테 쿠라파(Te Kurapa)는 원주민 지식, 예술, 문화를 탈식민화하고, 모든 지식 체계에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플로레스 멘데스(Flores Méndez)는 예술과 문화가 저항(resistance)의 필수적인 매개체이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증진하는 기술을 함께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술이 지배의 도구로 기능하는 대신 인간과 환경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 추구의 대상과 실천 강령

지금까지 살펴본 아홉 편의 글은 예술 및 문화 생태계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직면한 여러 장애물들을 다루고 있다. 문화 분야의 미래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해관계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긍정적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한 협력적 실천의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저자들의 글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를 앞둔 시점에 특히 명심해야 할 실천 강령은 다음과 같다.

-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안주하는 대신 인간윤리나 가치관의 테두리 밖에서 자체적인 진실을 만들어내는 기계 학습과 여타 기술적 도구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경계한다. 또한, 인간중심적 가치 존중의 토양으로서, 문화, 예술, 창의적 표현의 핵심인 공동체적 행동과 상상력에 주목한다.

- 불평등 해소와 제도적 개혁, 지역사회 주도의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포용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적 권리를 활용하는 한편, 문화정책이 오히려 체제적 분열과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검토한다.
- 참여적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과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상호 신뢰를 쌓고, 실천한 행위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검증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 양극화로 치닫는 공공 토론이 자치, 진정성, 서사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 자기결정권은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주지한다.
- 교육과 지식의 수집/전승/교환, 세대간 교류, 이념적 분열의 해소를 위한 참여적 공간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이며 자생적인 비영리 예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민간 부문, 개인 간의 협력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 기존 사회 규범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소외되는 공동체, 또는 사람들의 지역적 관점에 귀 기울이고, 차이란 곧 문화가 포용하는 강점이라는 사실을 주지한다.

- 돌봄, 협력,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을 지원한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체계를 활용하여
저항하고, 세계를 재구성하며, 디지털 공간에
다양한 가치의 체계를 내재화한다.

결론

IFACCA의 입장에서는 문화를 미래 비전 구상과
지속가능성 관련 공공정책 입안의 핵심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운영 환경 관련 측면들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다. 즉, 인공지능의 역할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커질 것이며, 공공 담론의
양극화는 심화 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 예술 및 문화 공동체로서 우리의 의견과
생태계를 회복할 기회와 책임을 지고 있다.

공동 주최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총회 개최 시점까지 그 진행기간 동안, 우리가 바라고
또 필요로 하는 미래에 관한 대화를 촉발하기를
희망하며 토론문을 갈음한다. 참여자들은 본
토론문이 다루는 쟁점과 우려사항들이 향후로도

변화를 거듭하며 지속될 것이기에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인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응집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접근법을 고려하는 데 가치를 두고자
한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현대예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리한 이 곳 한국은 특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복잡한 사안들을 함께 다루고 토론함으로써, 금번
문화예술세계총회가 문화 정책의 미래 보장과
새로운 정보 습득의 로드맵을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사무총장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¹ IFACCA Culture as a Public Good report (p.13)

² https://ifacca.org/media/filer_public/5e/6f/5e6fe804-eb05-4fed-9658-4da2834dcafe/a_crisis_of_sustainable_careers_-_september_2022_-_eng.pdf

³ <https://www.unesco.org/creativity/en/programmes/participatory-policy-monitoring-making>

참고 자료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2022. 『지속가능한 예술 경력의 위기? 독립 예술 및 문화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고찰(A Crisis of Sustainable Careers? Examining Working Conditions for Independent Arts and Cultural Workers)』. [온라인 자료]: https://ifacca.org/media/filer_public/5e/6f/5e6fe804-eb05-4fed-9658-4da2834dcafe/a_crisis_of_sustainable_careers_-september_2022-_eng.pdf. (검색일자: 2025년 1월 16일)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2024. 『공공재로서의 문화: 정책 논의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Culture as a Public Good: Navigating its Role in Policy Debates)』. [온라인 자료]: https://ifacca.org/media/filer_public/5e/41/5e416ea9-47c5-4d3e-959e-074d624da3bb/ifacca_-_culture_as_a_public_good_report-july_2024-_english.pdf. (검색일자: 2025년 1월 16일)

유네스코(UNESCO), 2022. 『참여적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Participatory Policy-Making and Monitoring)』 [온라인 자료]: <https://www.unesco.org/creativity/en/programmes/participatory-policy-monitoring-making>. (검색일자: 2025년 1월 16일)

유네스코(UNESCO), 2022. 『유네스코 세계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회의 – 몬디아컬트2022 최종 선언문(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2022 – Final Declaration)』 [온라인 자료]: https://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10/6.MONDIACULT_EN_DRAFT%20FINAL%20DECLARATION_FINAL_1.pdf (검색일자: 2025년 1월 16일)

유엔(United Nations), 2024.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 [온라인 자료]: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soft-pact_for_the_future_adopted.pdf. (검색일자: 2025년 1월 16일)

하즈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올라노스키, 박사*

스페인

2024년 3월부터 스페인 문화부 문화권리국 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문화기획자이자 문화정책 연구자이며 문화권리 전문가로, 마드리드 자치대학교(Autonomous University of Madrid, UAM)에서 미술사 및 예술이론을 전공했다. 동대학에서 고등연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공직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기획자로서 스페인 국립도서관 박물관에서 근무했고, 국립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과 협력하여 *예술과 전환* (Brumaria, 2012), *스페인 예술의 지평* (Horizontes del Arte en España, YGBArt, 2013) 등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마드리드 주의회 의원이자 문화 분야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문화권리를 옹호해왔으며 문화와 문화정책에 관한 에세이 『통제불능의 문화』 (*Ingovernable Culture*, 아리엘, 2022)를 저술하였다.



*본 에세이는 필자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 본인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권리의 보장, 권력의 재분배, 그리고 미래 구상을 위하여

문화 부문 종사자로서, 우리는 공히 문화가 사회적·민주적 변혁의 추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문화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며, 다양성을 증진하고, 비판적 지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문화는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이나 지속가능성의 추구하고 같은 중대 과제에 대응할 능력을 길러 준다. 요컨대, 문화 부문 종사자들은 문화가 미래 구축의 핵심 인자로서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가꾸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문화를 부차적이고 소모적인 것, 심지어 사치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계에서도 문화를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도 낮고,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문화 부문이 가장 먼저 예산 삭감의 도마에 오르며, 복지 창출 동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그 단적인 사례로, 2030 어젠다는 문화를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하지조차 않고 있다. 사회와 문화의

분리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화를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나 단순한 소비 대상, 즉 해당 분야 종사자들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즉, 문화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문화 부문이 직면한 주요 문제, 즉 공공정책과 자원 확보를 정당화할 논리의 부재나 문화 생태계 자체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의 근본적 원인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의 변혁적 실천 역량을 저해한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문화에서 배제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문화가 추동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의 이행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과 문화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검토해야 할 당면 과제는 문화와 사회적 이해관계 간의 연결성 회복이다. 문화와 시민권, 사회적 다수 사이의 유대를 구축하고, 기존의 긍정적 사례(가 있다면 이)를 소환하여 재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문화정책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공공정책을 문화적 자원과 기회의 재분배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의 문화적 삶을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와 불평등: 공공정책의 재고

접근권 개념에 기반한 문화정책은 문화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지만 사회적 다수를 위한 문화적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워릭 위원회(Warwick Commission)는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문화의 수혜층이 전체 인구의 15%, 그것도 주로 사회경제적 특권층과 인종적 다양성이 가장 부족한 사회계층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2015, p.23). 또한, 오리안 브룩(Orion Brook), 데이브 오브라이언(Dave O'Brien), 마크 테일러(Mark Taylor)는 Culture is Bad for You (2023)에서 계급, 성별, 인종 등의 지표가 문화적 참여도와 문화 분야 취업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두 연구는 공히 문화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더 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 부문의 경우, 전문직 또는 관리직 출신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반면 노동계층 출신에게는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주어지는 기회가 훨씬 적다는 것이다(p.67). 문화적 단절 현상의 광범위한 분포 또한 중대한 문제이다.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미 예술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p.96).

문화 자원 자체가 이미 높은 접근성을 가진 인구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각종 문화정책이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중이 기존의 ‘문화’ 개념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정책은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문화민주주의로의 실질적 이행을 추동하는 문화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의 맥락에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공공행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오랜 역사를 지닌 개념으로, 그 뿌리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문화적 권리 발전과 2009년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제21호(General Observation No. 21)등은 문화 권리 증진사의 주요 이정표로 자리한다. 아울러, 2022년의 몬디아컬트 문화 선언(MONDIACULT Declaration for Culture)은 문화 권리 존중과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스페인의 경우 최근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나바라 지역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률(Navarra Jurisdictional Law on Cultural Rights, 2019)이 인공지능 관련 사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카나리아 제도의 공공문화체계법(Law on the Public Culture System of the Canary Islands, 2023)이 입안되었다. 카탈루냐(Catalonia)와 바스크 지방(Basque Country)에서도 유사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최근 스페인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신설한 문화적 권리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ltural Rights)과 바르셀로나 문화적 권리 계획(Barcelona Cultural Rights Plan, 2021)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모두가 정부 기관 내에 문화적 권리의 개념을 통합한 최초의 사례로,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이 공공정책 수립과 사회와 문화 간의 관계성 회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문화정책의 변혁 모색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다 문화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규정하고, 둘째, 정치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셋째, 제도의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세 가지 핵심 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문화적 권리의 관점에서는 문화를 전문가나 예술가들에게 국한하는 대신 보편적인 공유의 대상이자 일상의 일부로 규정한다. 이는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주장(2008, p.38)에 의거한 입장으로, 문화적 권리의 실천은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뿐 아니라 스스로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적 자산을 관리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동체적 실천을 인정받고 문화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괄한다.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가 문화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이들이 문화를 생산할 능력을 지니게 되며, 일상 속에서의 향유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문화적 권리 기반의 관점은 문화가 시민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준다. 기존 문화정책의 경우 문화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란 곧 특정 직종 종사자의 문제라는 편견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문화를 교육이나 보건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문제로 본다면, 공공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권의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문화를 경제적 자원으로 단순화하여 취급하고, 향유보다는 생산과 운영을 우선시하며, 매개와 참여를 등한시하는 기존의 정책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의 역할 또한 바꾸어야 한다. 알폰스 마르티넬(Alfons Martinell)과 베아트리스 바레이로(Beatriz Barreiro)가 제안(2020, p.5)하듯 문화기관들은 문화를 공급할 뿐 아니라 문화 경험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의 창조 주체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 모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릴레나 샤우이(Marilena Chaui)가 주창하듯(2013, p.92), 문화정책은 사회가 자체적으로 문화적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모든 이들이 문화적 삶의 주체로서 온전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요컨대, 문화적 권리라는 관점은 문화란 일상 속에 자리한,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문화 촉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재분배하여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문화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권리 기반 접근법은 문화와 사회적 다수 간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문화가 본래의 변혁적 역량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공동의 삶 속에서 온전히 통합될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하자는 것이다.

스페인 문화부는 이러한 원칙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지역 발전, 공동체 활동, 교육 및 문화 매개, 성평등, 민족·인종 및 언어적 다양성, 장애, 세대 간 관계와 같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총 13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권리 계획(Cultural Rights Plan)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2030 어젠다, 디지털 권리, 불평등 해소 등의 현안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평가 및 우수 사례 선정과 같은 기술적 과제도 이제 포함시키고 있으며, 문화적 권리 전문가, 문화 분야 종사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규모 참여 프로젝트를 실천한다. 정책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타 부처 및 자치정부(Autonomous Communities)들과 협력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고, 문화와 다른 정책 분야 간의 교차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관련 절차는 2025년 5월에 최종 문서의 공식 발표로 마무리하며, 국제 포럼 몬디아컬트 (MONDIACULT) 2025에서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평화를 위한 문화(Culture for Peace), 2030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에 문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 등 현대 문화정책의 핵심 사안을 두루 논의할 것이다.

문화적 권리기반 접근법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적 삶의 주체이자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권력의 재분배

문화적 권리기반 접근법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적 삶의 주체이자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실천이야말로 문화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고, 문화를 공공정책의 핵심 분야로 지정할 당위성을 확보하며, 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그 변혁적 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원의 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한, 시민이 문화적 삶의 주체로 자리하기는 어렵다. 권한 없는 주체성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기관과 정책 결정자들은 참여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력과 자원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적 실천을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문화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문화적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가 없다. 문화 권력 분배를 위한 노력의 부족이야말로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문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이유라 하겠다.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주변적 담론에 머물러 온 것은 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권력의 재분배는 문화가 번영하고 그 잠재력을 오롯이 발휘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창의성, 언어, 문화유산, 공동체, 참여라는 측면에서의 진전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승한 유산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기존질서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하여 열린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응구기 와 시옹오(Ngũgĩ wa Thiong'o)는 “문화는 꽃과 같다. 단지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2017, p.112)라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란 우리가 함께 창조하고 구축하는 다층적인 의미와 새로운 세계들을 뜻한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문화정책 설계는 창조와 비판적 성찰의 지속적이고도 열린 흐름을 지향해야 한다.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야말로 사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핵심적인 조건이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있는 미래이기에.

니샷트 샤, 박사

홍콩특별행정구, 중국/인도/네덜란드

페미니스트이자 휴머니스트, 기술 연구자로서, 신기술, 사회 조직, 집단 행동과 희망의 서사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콩중문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이자 디지털 서사 스튜디오(Digital Narratives Studio) 창립자로, 해당 학부의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인도 인터넷사회연구소(Centre for Internet & Society)를 설립하였으며, 네덜란드 ArtEZ 예술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사회센터(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에서 연구교수(Faculty Associate)로 활동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라드바우트대학교(Radboud University) 산하 문화사연구소(Radboud Institute of Culture and History)에서 객원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신기술, 정치적 동원, 예술 및 문화 생산 분야에서 지식 협력자(knowledge partner)로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최근의 저서로는 『Really Fake』 (2020, 미네소타대학교출판부)와 『Overload, Creep, Excess: An Internet from India』 (2022/23, 네트워크문화연구소/레프트워드북스)가 있다.



생성형 AI와 서사 간의 갈등: 인간의 의도와 기계의 논리

최근 우리는 끊임없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듣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관통하는 정서는 주로 GenAI에 대한 흥분 또는 불안감인데,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GenAI가 ‘신흥 기술(emergent technology)’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맥락화하기 위해, 기술의 역사로부터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provocations)해 보자.

프랑스 철학자이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창시자인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는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시화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화된 기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 편리하고 중립적인 도구로서 일상 속에 스며든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이상 익숙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즉 방해받거나(interrupted), 중단되거나(disrupted),

고장 날 때(break down)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새삼 기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 소프트웨어 연구자 웬디 후이 경 천(Wendy Hui Kyong Chun)은 ‘습관적 뉴미디어(habitual new media)’라는 개념(2021)을 제시하며, 기술은 습관화될 때 비로소 가시화된다고 주장한다. 습관(habit)이란 생각 없는 본능적 반복으로, 우리는 반성(reflection) 없이 익숙하게 수행하는 행위를 습관으로 간주한다. 그러다가, 기술이 진보하거나 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수행해 온 습관 또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럼으로써, 기술적 변화는 흥분(excitement)과 불안(anxiety)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촉발한다. 생성형 AI(GenAI)는 기존 기술을 파괴하거나(breaking existing technologies), 익숙해져 있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습관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GenAI)에 대한 불안(anxiety)과 흥분(excitement)은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개념으로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GenAI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과 대규모 행동 모델(Large Action Models, LAMs)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업데이트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여 결정(decision)을 내리고 행동(action)으로 변환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데이터는 인간의 이해 능력을 넘어선 광대한 규모를 자랑할 뿐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성(human temporality)을 초월하는 속도로 처리된다. 그 결과, 정보 과부하의 조건이 성립한다. 물론, 정보 과부하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없다(Lockhorst & van de Poel, 2012; Shah, Rajadhyaksha & Hasan, 2021).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정보 과부하를 일종의 ‘바람직한 존재 양태(desirable state of being)’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는 접하는 모든 정보를 직접 다루고, 검증하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Leslie, 2020). 결과적으로, AI 시스템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AI는 끊임없이 무엇이 진실(truth)이며 무엇이 거짓(lie)인지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한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 바로 AI 시스템이 정의하는 ‘진실(truth)’과 ‘거짓(lie)’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적(machine)인 것이라는 점이다(Aroyo & Welty, 2015). AI 시스템에서의 진실성은 시스템을 조직하는 논리가 검증하는데,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원칙 중 하나가

바로 GIGO(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즉, 컴퓨터 연산의 결과(output)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오류는 기계의 잘못이 아니라 기계에 입력된 데이터(input)와 이를 설계한 프로그래머의 탓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적용된 논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 결과는 기계적 논리적 ‘검증된(truthful)’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기계는 이를 ‘참(true)’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적 정보 검증의 논리(machine logics of information verification)는 연산 네트워크(computational networks)와 정보 처리 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에 의해 형성되며 (Seaver, 2019), 그 과정에서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작동한다.

정보의 분리와 알고리즘적 의미 생성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분리(separation)이다. AI 기술은 디지털 연산(digital computation) 기술로 작동하며, 연속성(continuity)보다는 분리의 논리에 기반한다(Barabasi, 2002). 즉, AI 시스템은 답변을 생성할 때마다 기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대신 매번 새롭게 데이터를 연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얼핏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AI 시스템이 우리를 프로파일링하고, 특정 정보를 타겟팅하며, 맞춤형(customised) 데이터를 제공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과 거래를 통해 우리를 기억한다고 계속 들어왔기에. 시스템에 깊숙이 내재한 감시 구조(surveillance)로 인해, 마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memory)과 기억하기(remembering)는 결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AI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를 ‘기억(remember)’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대한 ‘기억(memory)’을 지니지는 않는다 (Juhasz, Langlois, & Shah, 2020). AI 시스템은 우리와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의 개별적이고(discrete), 분리된(separated) 노드(node)로 인식하며, 새로운 데이터 거래(transaction)를 하는 대상으로 볼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ChatGPT에 질문을 하거나 Google에서 검색을 할 경우, 그 결과물은 맞춤형(customised)일 수는 있어도 역사화(historicised)되지는 않는다. Google은 과거에 우리가 검색한 기록을 저장하고(Nobel, 2012) 클릭한 링크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에 가치를 두었는지 혹은 애초에 질문을 던진 의도(intention)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Ridgway, 2023).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물을 때 ChatGPT의 시스템은 질문의 의도를 추정할 뿐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이는 AI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분리(separation)의 시스템’이기 때문으로, 정보의 맥락(context of information)을 사용자로부터 분리하여 알고리즘적 과정(algorithmic process)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AI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 패러다임과 무관한 ‘진실(truth)’과 ‘거짓(falsehood)’을 생성할 수 있다. 즉, 생성형AI(GenAI)가 제공하는 답변이나 결정은 더 이상 사용자의 욕망(desire)이나 의도(intention)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아닌 것이다. 대신, AI는 ‘정상(normal)의 논리’를 따르며,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가정(assumption)하에 작동한다. 이러한 분리의 조건(condition of separation)이 에코 챔버(echo chambers)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즉, 당신과 나를 비슷한 사용자 유형으로 인식할 경우 시스템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의 정보는 차단한다.

개별화(Individuation)와 네트워크화된 정보

두번째의 중요한 변화는 개별화(individuation), 즉 AI 네트워크가 우리를 서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Peeters & Borra, 2022). 개별화는 AI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 관계 속에 개입할 때 발생한다. 그 결과, 서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 AI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을 훈련하고 있는 셈이 된다. 타인과의 단절이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친밀한 대화(intimate conversations)를 나누거나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AI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AI 시스템이 사람들 간의 연결성을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라는 약속의 유혹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 생각, 아이디어를 AI에 제공하고, 또 AI가 우리를 더욱더 잘 보조할 수 있도록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다. 이렇기에, 디지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best friend)’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인 플랫폼의 알고리즘(algorithms)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예측 시스템(Predictive Systems)

기계 논리(machine logics)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예측 기술(predictive technologies)의 등장으로 (Yuan et al., 2016; Chun, 2021), 이는 AI에 대한 일반적인 서사만 볼 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predict)’한다. 그러기 위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s)와 인과관계(causality)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각기 다른 요소들을 조합하여 가장 그럴듯한(plausible) 의미의

집합을 제공한다 (Castelvecchi, 2016). 따라서, AI는 현실을 ‘재현(represent)’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설계 논리에 따라 그럴 듯한 하나의 현실을 ‘처방(prescribe)’하는 것이다. 예측 기술(predictive technologies)은 증거(proof)나 검증(verification)이 아니라 개연성(plausibility)과 확률(probability)에 의존한다. 그 결과, 생성형 AI(GenAI)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를 ‘AI 환각 (hallucination)’이라 부른다. 환각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real) 혹은 외부적 증거(external evidence)로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정보일 수 있다.

이렇듯 분리(separation), 개별화(individuation), 예측(prediction)이라는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생성형 AI(GenAI)의 작동 방식을 고찰해 보면, GenAI가 제공하는 응답이란 곧 ‘가장 그럴듯한(most probable)’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GenAI의 응답은 사용자의 개별적 프로필(individual profile)에 따라 맞춤화(personalised)되며, 그렇기에 다른 사용자와 같은 정보를 공유할 길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GenAI를 다룰 때 우리는 ‘진실(truth)’과 ‘거짓(lie)’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GenAI 시스템 내에서 정보의 신뢰성(fidelity)은 오직 해당 시스템의 논리적 우주(logical universe)와 설계 구조(design)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다 (Ganesh, 2020). 즉, 인간적 기준에서는 거짓일 어떤 정보가 기계적 논리(machine logics)의 관점에서는 참일 수가 있다. 이는 곧 “당신을 속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짜가 아니(“[i]f it fools you, it is not fake”)”라는 논리이다 (Juhasz et al., 2020).

따라서, 우리는 생성형 AI(GenAI)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사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GenAI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서사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GenAI를 인간적 작동체(human operatives)로 간주하고 인간의 언어와 논리를 사용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존재로 이해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실패할 싸움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생성형 AI(GenAI)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사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GenAI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서사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GenAI를 인간적 작동체(human operatives)로 간주하고 인간의 언어와 논리를 사용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존재로 이해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실패할 싸움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신, 이러한 서사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의도(intention)’와 ‘정보(information)’를 분리(separate)하는지, 어떻게 ‘개별적인 의미(individuate meaning)’를

생성하여 공통된 이해의 기반(common grounds for understanding)을 붕괴시키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이 설정한 논리에 따라 ‘가장 그럴듯한(plausible)’ 결과를 예측(predict)하는 방식을 따르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이 생성형 AI(GenAI) 개발의 속도를 늦출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Future of Life, 2023). 그러는 한편, 이들은 AI 없는 삶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으며, AI는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가피한 존재로 자리잡았기에 그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중단할 선택지는 없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유형의 서사를 구축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계적 논리(machine logics)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사상을 강화하는 서사. 개별화(individuation)와 맞춤화(customisation)가 아니라,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을 강조하는 서사. 검증(verification)과 확률(probability)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상상력(imagination)과 허구(fiction)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서사. 이 모두가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할 서사의 투쟁(narrative struggle)이다. GenAI는 삶(life), 노동(labour), 언어(language), 사랑(love)의 영역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입해야 한다.

이준, 공학박사

대한민국

이준은 예술, 연구, 교육, 디자인과 기술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예술가이자 연구자, 교육자, 디자이너이다. 기술 기반 다감각 예술, 사회비판적 예술, 예술로서 게임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 한국의 다학제 예술 생태계와 미디어 아트 보존 분야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그는 2001년부터 서울 아트센터 나비에서 발표한 《Trialogue》를 시작으로 자연-인간-기계 간 소통이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왔다. 인간-비인간의 공진화 및 예술을 통한 사회비평에 대한 그의 선구적인 작업들은 서울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베이징 트랜스라이프(TransLife) 등 다양한 국제 비엔날레와 전시회에 초청되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교육자로서 이준은 국내 주요 교육기관에서 피지컬 컴퓨팅, 인터랙션 디자인, 뉴미디어 아트 관련 교과목을 개발, 강의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디지털디자인학과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 교육의 학제 간 융합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ACTscape: 예술, 문화, 기술(ACT)의 색다른 확산과 융합(diffusion)

지난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서구 민주주의와 기술 자본주의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면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과 깊은 자가성찰을 바탕으로 한국은 타자(즉, 서구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자국의 전통 문화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맞이했으며, 현세기로 접어든 이후로는 망각의 지평 너머에 가라앉아 있던 전통 사상을 다시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복 대상에 해당하는 개념으로는 자연 친화(自然親和), 물아일체(物我一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중동(靜中動), 격물치지(格物致知) 등과 같은 사유 체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전통 사상의 요소들은 20세기 후반의 서구 철학, 특히 ‘타자의 철학(Philosophies of The Other)’과도 상응하며, 21세기의 철학적 흐름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이나 신유물론(New Materialism)과도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 인간, 인공물(artefacts)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평등과 공동체적 관계로 이행해 가는 전환을 의미하며,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 세계관에서 우주 중심적(cosmocentric)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즉, 조심스럽게 그 연결성을 따져 보자면, 21세기에 접어들며 동아시아 철학, 즉 선불교(Zen Buddhism), 도가(Taoist philosophy), 유가철학(Confucianism)이 인간과 비인간(human-non-human), 인간 상호 간(human-human)의 관계를 복원하고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들은 한국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철학적 근간이기도 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자연, 인간, 기계의 공진화(co-evolution)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 연구, 창작, 교육의 기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를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기술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은 문화창의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CCS)생태계와 어느 수준까지 통합되었는가?

물아일체(物我一體, Oneness of Object and Self)

대한민국은 예술(Art), 문화(Culture), 기술(Technology) 간의 다양한 색다른 확산과 융합(diffusion)을 창출하며 ACT(ACTscape)의 지형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급변하는 정보 및 기술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예술과 문화 영역에 통합해왔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 창작, 교육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이 내포하는 양가성(ambivalence of technology)에 대한 비판적 탐구 또한 병행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자연, 인간, 기계의 공진화(co-evolution)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여기서 공진화는 인간의 지식이 독립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인간, 사물(object)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형되는 혼성적 지식(hybrid knowledge)임을 의미한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및 물아일체(物我一體)와 같은 개념은 동아시아 선불교(Zen Buddhism)와

도가 철학(Taoist philosophy)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 인간, 인공물(artefacts) 간의 구분을 지양하고 상보적 조화를 추구하는 지식 체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성적 지식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원리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철학적 전통 속에서 한국은 오늘날 인간과 비인간(non-human)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 혼성적 지식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호준의 ‘오픈소스 인공위성 프로젝트(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1)’, ‘제주 창의 예술 교육 랩’,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미디어 아트 보존 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자연, 인간, 기계의
공진화(co-evolution)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여기서 공진화는 인간의
지식이 독립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인간, 사물(object)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형되는
혼성적 지식(hybrid
knowledge)임을
의미한다.**

예술가 송호준이 펼쳐보이는 논란의 과학 판타지, 《OSSI-1》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송호준(Hojun Song)은 기존의 예술적 문법을 따르지 않는, 도발적이면서도 유쾌한 한국의 다학제적 예술가이다. 그의 대표작인 《오픈소스 인공위성 프로젝트-1(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1, OSSI-1)》는 소형 DIY 큐브 위성을 직접 설계, 제작, 발사한 프로젝트로 ‘스페이스 로맨스(Space Romance)’라고도 불린다. 2013년에 완성된 이 위성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춘 실험적 작품이었다. 작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개인이 인공위성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발사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는 국가와 대기업이 독점해온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 능력을 민주화한다는 기치 하에 인공위성의 개발 설계 자료와 소스 코드를 깃허브(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그러나 우주로 발사된 위성은 결국 지상과 통신이 끊기며 추적이 불가능했다. 아마도, 한동안 지구 궤도를 고요히 돌다가 결국 우주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송호준의 시도는 실패한 프로젝트라 할 수도 있기에, 그의 작업은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각에서는 이 작품을 무의미한 해프닝으로 간주한 반면 일부는 영웅적 서사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원래 의도나 최종적인 성공·실패 여부와는 무관하게, 필자는 이 시도를 하나의 ‘한국의 돈키호테(Korean Don Quixote)’적 도전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즉, 정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대한 우주와 소통하려는 실험적 탐구로 보자는 것이다.

개인이 만든 인공물을 하늘로 쏘아 올려 우주와 직접 소통하려는 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연과 인간, 기계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제시한다. 인류세의 현대에 송호준의 작업은 세계와 자아의 합일에 대한 기묘한 예술적 탐구인 한편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탐색이라 할 것이다.

제주 창의예술교육 랩(J-ART)의 《바람이 {데이터}로 분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 세대 격차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 생태 문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문화예술 교육을 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9년 창의예술교육 랩(Creative Art Education Lab, CAEL)을 발족했다. 이 기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학제적 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들의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작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제주 창의예술교육 랩의 《바람이 {데이터}로 분다》이다. 2019년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서, 지역 참가자들은 인간의 감각과 비인간 요소(자연과 데이터)간의 연결성을 고찰했다. 참가자들, 즉 시민 데이터 과학자들은 제주의 바람을 관찰하며 감각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로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간, 자연, 기술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능동적 존재(active entity)로 만들어 낸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백남준 《다다익선》 미디어 예술 작품 보존 프로젝트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 현실(AR), 데이터과학과 같은 디지털 융합 기술은 미디어 아트 보존 부문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간의 협업 가능성을 새롭게 찾아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필자가 참여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디어 예술 작품 보존 연구 프로젝트는 비디오 아트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 백남준의 기념비적 비디오 설치 작품 《다다익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1988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다다익선》은 총 1,003대의 브라운관(CRT) 모니터를 원형 구조로 배치한, 높이 약 18m, 지름 10m 규모의 대형 비디오 아트 설치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요 손상 원인은 열 발생으로 인한 모니터 고장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온도, 습도, 장비 오작동을 수동으로 점검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확한 상태 모니터링의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그 해결책으로 개발한 것이 AR, 데이터 과학, IoT를 통합한 모듈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 측정과 시각화, 문제 발생 보고를 통해 《다다익선》의 보존을 지원한다. 이 연구는 빅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타 미디어 아트 작품의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중동(靜中動), 동중동(動中動), 동중정(動中靜)과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움직임

증강현실(AR)이 일상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한국의 현 상황은 COVID-19 팬데믹과 깊은 연관이 있다. AR 기술의 편리함과 비접촉성은 전국적인 증강현실 문해력(AR literacy) 확산을 촉진했다.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 생활의 어려움을 기민하게 극복했으며, 사물, 바코드, QR 코드를 접합한 AR은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비접촉 시대를 상징하는 강력한 기호로 기능했다. AR과 XR(확장현실) 기술은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창출했으며, K-팝 음악 콘서트와 미술 전시에서의 활용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정중동(靜中動), 동중동(動中動)⁴, 동중정(動中靜)⁵ 과 같은 동아시아 철학을 21세기 기술 환경에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해 사람들은 물려서서 고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적 속에서도 일부 한국 예술가들은 XR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예술적 체험을 제공했다(靜中動). 한편, 또 다른 예술가들은 QR 코드와 AR 기술을 활용하여 작품과 관객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미술관 경험을 창출함으로써 동중정(動中靜)과 동중동(動中動)의 개념을 구현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K-팝 부문의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과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예승의 작업을 들 수 있다.

팬데믹 기간 중에 2020년 10월, K-팝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은 X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BTS MAP OF THE SOUL ON: E》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XR을 기반으로 한 다중 시점 스트리밍 시스템(multi-view streaming system)을 구축하여 관객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한 후 여섯 개의 실시간 화면 중에서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BTS의 음악 공연을 위한 다채롭고 역동적인 가상 공간을 형성하는 데 XR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이 현장감 넘치는 공연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공연은 비대면 시대에 XR이 새로운 예술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BTS는 대면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역동적인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靜中動) 팬데믹에 지친 관객들이 공연의 에너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動中動).

한국의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예승은 AR 기술을 예술적으로 확장하며 QR 코드를 단순한 기술적 기호가 아닌 함축적이면서 예술적인 기호(artistic signs)로 변환한다. QR 코드를 이미지의 구성 요소로 변형하고 작가의 대형 이미지와 연결하여 AR 모션 그래픽으로 완성하고, 관객들이 스마트

폰의 A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인식하면 스마트폰 화면 위로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신선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예승은 관객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정적인 QR 코드를 동적인 이미지로 변환함으로써 동아시아 철학의 ‘정중동(靜中動)’ 개념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색다르게 확산(diffusion)시킨다. 2021년, 그녀는 BTS와 협업하여 서울의 대형 건물 외벽에 QR 코드와 BTS의 〈Permission to Dance〉 가사를 결합한 AR 작품 《분분중중(紛紛從從)》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QR 코드를 변형하여 새로운 AR 아트워크를 창출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거리를 지나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의 과제와 기회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으로 강력한 문화창의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 기관들은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은 인공지능 예술, 메타버스 예술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창작과 향유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문화예술의 디지털화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한편, 이러한 지원 구조는 한국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한국 비영리 예술 부문이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이제는 독립적이고 자립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 중앙 정부가 비영리 예술 부문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이 상업 예술 부문을 육성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적 특성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가?

⁴ 동중동(動中動) 개념은 역동적이거나 활동적인 상태에서도 보다 깊은 차원의 움직임이 존재하며 이는 주된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균형, 상호연결성, 변환(transformation)과 같은 철학적 원칙을 보완하는 요소로 자주 쓰인다.

⁵ 동중정(動中靜)은 역동적인 활동이나 움직임 속에도 고요하고 중심 잡힌 정적(stillness)이 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조화, 균형, 상반된 요소들의 상호연결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사라 압두 부슈라

에티오피아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큐레이터이다. 동아프리카 지역 예술가들의 삶의 경험을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이들이 구축하는 연대의 기반을 문서화하여 뿌리 깊은 예술 생태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아카이브와 탈동시대적 예술 실천을 중심으로 작업하면서 전시 기획과 큐레이터 실천의 다원성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 기반 및 과정 중심의 협업적 실천을 지향하는 큐레이터 집단 Contemporary Nights의 공동 설립자이며, 집단성과 협업의 습관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GOJO라는 이름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학적 연구 및 보존을 목표로 사회적 · 정치적 복지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의 예술가들과 함께 사유하는 장기 연구 프로젝트 *히아신스와 백합 뜯어먹기, 혹은 위엄을 먹고 유창해지는 방법 (Grazing Hyacinth and Lilies or How to Feed on Majesty to Become Eloquent)*을 진행 중이다.



세계만들기 (worldmaking)를 향하여

2016년, 세네갈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음악가인 펠라와인 사르(Felawine Sarr)는 아프로토피아(Afrotopia)를 출간하며 아프리카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는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 서문에서, 사르는 경제 성장, 빈곤 퇴치, 경제적 부상(emergence), 발전(development)의 개념이 서구적 관점에서의 이상적 세계관(Western dream)을 우선시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지적 포위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대안적 가능성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를 포함한) 일부 기획자들은 사르의 제언을 수용해 예술과 문화 생산을 식량 생산과 병행하여 이론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는 초국적이며 자율적으로 조직된(collaborations) 예술 및 문화 부문의 협력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생산성 증대와 시장 접근 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를 쫓는 외부의 자금 지원 기관들이 종종 자연 자원을 불가역적으로 훼손하고 지역 연대를 파편화하며 원주민 지식을 말살해 버리는 문제를 묵묵히, 그러나 꾸준히 다루어 온 과학자들과 단체들의 작업을 조명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홈그로운 비전(Homegrown Vision)은 에티오피아에 기반을 둔 독립 연구소(independent think tank)로, 지역 농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급자족형 농업 생태계를 옹호하며, 진정한 발전(development)은 외부에서 주어지기보다는 국가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작업은 탈식민화(decoloniality)를 단순한 은유적 개념이 아닌 실제 삶의 형태(lifeform)로 구현한다. 탈식민화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즉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으로 다루는 자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반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물질적 실천(material practice)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헤쳐 나가는 가운데 문화 실천가

들은 어떻게 탈식민화를 생동하는 힘(living force)으로 되살려 우리의 작업을 이끌고 규율하는 원칙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2021년, 영국의 샌드위치 매거진(Sandwich magazine)이 발행한 *아프리카 쟁탈전*(The African Scramble) 특별호는 이러한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티오피아 출신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루스 게브레예수스(Ruth Gebreyesus)와 나이지리아의 셰프이자 작가인 툰데이 웨이(Tundey Wey)가 초청 편집한 이 특별호는 ‘개념적 샌드위치(conceptual sandwich)’를 통해 글로벌 식량 정치(food politics)를 탐구했다. ‘개념적 샌드위치’란 생산, 소비, 가치 사슬의 여러 층위를 드러내어 아프리카의 자원을 둘러싼 ‘쟁탈(scramble)’⁶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오늘날의 글로벌 식량 시스템이 어떻게 식민적 역학(colonial dynamics)을 재생산하는지 고찰하는 장치이다. 편집자 서문에서, 루스 게브레예수스는 “나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다.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이 특별호의 기획을 설명했다. 논쟁적 담론과 물질적 현실을 시적·은유적 접근과 의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 특별호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질문을 던진다: 소비와 경작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치적·미학적 균열을 어떻게 고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균열을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매핑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성을 재고할 수 있을까?

행위성의 문제와 모임의 공간

에티오피아 학자 네차넷 게브레미카엘(Netsanet Gebremichael)은 “그러나 가슴은 메마르지 않았다!”(But Hearts Did Not Go Dry!)라는

글에서 1977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근 당시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형성한 돌봄 전략을 분석한다.⁷ 1977년의 기근은 지금까지도 대규모 국제 원조 프로젝트와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위 아더 월드: 우리가 곧 세계다’(We Are the World)와 같은 전지구적 노력이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나, 게브레미카엘은 국제 원조의 역사적 기록이 간과했거나 무시한,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지원과 연대의 방식을 조명한다. 이 중요한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내 연대의 문화사에서 좀처럼 인정받지 못한 실천들을 문서화하며, 세 가지의 지역사회 구술 역사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풍요롭게 자라난 돌봄 인프라를 조명한다. 게브레미카엘이 발굴하는 것은 절망적인 시기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는 기존의 기록에서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그는 원조와 돌봄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에티오피아의 국가적 상상 속에 깊이 각인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는 주는 자, 에티오피아는 받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서서히 해체해 나갈 지각 변동적 전환(tectonic shift)을 제안한다.

개발의 기획과 실천 간의 차이는 자연 체계와의 근접성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유의미한 문화 작업과 개발의 방법론은 자연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문화와 식량 생산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농부들이 농지를 휴경(fallow)하듯이, 문화 실천가들 또한 즉각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숙고를 거친 협력을 도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집단성(collectivity)과 공동적 사고(communal thinking)는 의미 있는 문화 작업의 핵심이지만, 이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종종 추상적인 느낌을 준다. 문화창의부문(CCS)에서 논하는 ‘느린 시간(slow time)’ 속에서 작업한다는 개념이 그 일례라 하겠다. 생태학적 연구에서 사회적·정치적 복지를 수용하기 시작한다면 문화 작업의 방식 또한 변화할 것이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방법을 개척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화를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는 태도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인식적 괴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술과 농업이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통합된 사례는 팔레스타인 라말라(Ramallah) 외곽의 독특한 자연 보호구역에 위치한 실험적 지식 생산 아카데미, 사키야(Sakiya)에서 볼 수 있다. 사키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델은 문화 및 식량 생산을 교차시킴으로써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 세계관 속 지배자의 관점을 지양하며, (농부를 포함한) 문화 실천가의 역할을 자연의 관리자로서 재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사키야는 “예술의 역사는 곧 농업의 역사이기도 하며, 그러한 얽힘은 인간과 환경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모임의 공간(gathering spaces)과 장소 만들기(placemaking)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에티오피아의 예술가 베르하누 아샤그리(Berhanu Ashagrie)는 그의 전시 *Wulo*에서 장소 만들기(placemaking)를 실천하며, 대지와 몸의 지형(topography)을 만남의 지점으로 설정함으로써 급진적 집단성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Wulo*는 “머무르다” 또는 “머물기”를 의미하는 암하라어(Amharic) 단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는 에티오피아의 전통을 가리킨다. 아샤그리는 애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집단화를 촉진하는 정서적 요소(affective agent)로 조명하며, 애도가 어떻게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동원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적 지식과 체화된 실천(embodied practices)은 모임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동시에 하나의 상징적 공간(symbolic space)을 형성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친족 관계(kinship)를 확장하며, 연대 속에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애도의 실천을 숙고하는 이 전시는 신체의 물리적 형상을 시각적 재현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상징적 회피(symbolic evasion)를 아샤그리의 작업에 나타나는 일종의 모티프로 이해한다면, 관객으로서의 우리는 신체의 의미가 다층적으로 뻗어나간다는 인식을 지니게 된다. 그의 작품에서, 신체는 내재적 경계 너머로 확장되어 보다 넓고 취약함과 행위성이 공존하는 장소로서의 사회적 신체(social body)로 변모한다. 아샤그리는 신체가 지닌 익숙한 취약성을 비판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의 불안정성과 전략적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접기의 교육적 어휘(pedagogic vocabulary of folding)를 활용하여 보존의 언어(language of preservation)를 구축한다. 애도 의식에 쓰이는 천을 차후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할까? 집단적 모임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아가, 압박 속에서도 그같은 공간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식 생산의 중심점 재구축

집단적 모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듯, 다양한 지식 생산을 위한 원천과 공간 또한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만들기(worldmaking)의 핵심적 행위인 것이다. 미국 학자 도나 J.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어슐러 K. 르 귄(Ursula K. Le Guin)의 에세이 『소설의 캐리어 가방 이론(The Carrier

Bag Theory of Fiction)』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지가 중요하다.우리가 다른 개념을 사유하기 위해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우로보로스(ouroboros, 자기 꼬리를 물고 도는 뱀)가⁸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스스로를 삼키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세계만들기(worlding)가 용(龍)의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방식이다.”

집단적 모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듯, 다양한 지식 생산을 위한 원천과 공간 또한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만들기 (worldmaking)의 핵심적 행위인 것이다.

해러웨이는 이같은 주장을 통해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의 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맥락적 실천(situated practice)이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물질성과 맥락에 뿌리를 두는 실천을 의미하며, 광범위한 관점과 지역에 대한 세밀한 개입을 결합하는 방식의 접근을 요한다. 맥락성에 대한 인식은 유럽중심적 관점에 기반한 근대(Euro-modern) 지식 생산의 헤게모니를⁹ 당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대안을 모색할 길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국의 큐레이터이자 연구자인 하산 바우다(Hassan Vawda)의 작업에서 볼 수 있다. 예술적 미잔 Artistic Mizan (2024)에서, 그는 예술 공간 안에 머물며 ‘자유주의적 지배 문화(perceived liberal

dominant cultures)’와 협상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논하며, 종교적 신념과 신앙 공동체를 현대 예술 실천과 통합하는 틀을 제시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바우다는 서구의 예술사나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차용한 관점을 적용하는 대신, 급진적 상상의 실천(radical imagination)으로서 ‘미잔(mizan)’ 개념을 도입한다. 바우디가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가져온 개념인 미잔은 균형(balance) 또는 저울(scale)을 의미하는 아랍 용어로 전통 이슬람 학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바우다는 이를 현대 예술 실천에 적용하여 “1/3 전통, 1/3 질문, 1/3 실험”으로 구성된 균형을 제안한다. 마르티니크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에드워드 글리상(Édouard Glissant)이 말하듯, “차이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와의 공존은 우리의 작업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여러 참고 문헌들은 세계만들기(worldmaking)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꼭 기존 제도들의 작동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구조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미국 철학자 넬슨 굿맨(Nelson Goodman)은 *세계만들기의 방법(Ways of Worldmaking)* (1978)에서 인간은 경험, 언어, 예술, 문화적 토대, 상상을 바탕으로 다층적인 세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한다. 세계만들기는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핵심적 활동이며 변혁적인 실천(transformative practice)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만들기는 끊임없는 수행적 실천(performative exercise)이자, 단일한 세계관을 거부하는 유동적 과정(flux)이다. 세계(world)라는 단어의 은유적 확장성을 통해 예술가, 문화 실천가, 과학자, 그리고 사상가들의

급진적 상상력(radical imagination)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다중심적(polycentric) 사유 공간에 투자하며, 정의를 상상하고 가시화할 용기를 지닌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 공존의 대안적 방식(alternative modes of coexistence)을 제안하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모임의 방식을 새로이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모이고 함께 존재하는 이론과 실천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만들기(worldmaking)를 위한 우리의 행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⁹ 우로보로스(Uroboros)는 그리스어 '우라(oura, 꼬리)'와 '보로스(boros, 먹다)'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또는 용의 형상을 나타내는 고대 상징이다. 삶의 순환성(cyclical nature of life), 자기 성찰(self-reflexivity), 통합(unity), 그리고 파괴와 재생의 영원한 순환(eternal cycle of destruction and renewal)을 의미한다.

¹⁰ 유럽중심적 관점에 기반한 근대 지식 생산 체계(Euro-modern knowledge production)란 17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근대 유럽에서 등장한 지식 생산 및 공유의 체계, 틀, 실천을 가리킨다. 이러한 지식 생산의 방식은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s), 합리성(rationality), 보편주의(universalism)를 강조하며, 세계의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끼쳐왔다.

마우리시오 델핀

미국/페루

문화 거버넌스, 시민사회, 시민 기술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로, 사회과학, 예술경영, 사회 참여형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시스템 설계를 통해 시민 참여와 개방형 문화 거버넌스의 교차 지점을 연구하고 있다.

문화 활동가이자 진보적 문화정책을 위한 옹호자로서 페루의 미디어 아트 기관인 Realidad Visual과 페루 국가 문화 정상 회의(National Summit of Culture)를 공동 설립했다. 페루 문화단체 연합(APOC, Alianza Peruana de Organizaciones Culturales)의 기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포용적이고 투명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써왔다. Asociación Civil Solar의 디렉터로서 라틴아메리카 예술·문화 부문에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EU/UNESCO 2005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전문가 그룹(Expert Facility)의 일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또한 Artistic Activism Research CoLab의 코디네이터이자, 뉴욕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정책연구소(Culture and Arts Policy Institute)의 공동 디렉터로서 ‘문화 데이터를 위한 개방(Open Data for Culture)’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맥길대학교와 뉴욕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스펙트럼으로서의 참여 개념

정책 결정의 측면에서, 참여는 단일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포괄하는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보아야 한다(IAP, 2006; Chilvers et al., 2015; Reed, 2018). 이는 50여년 전에 미국의 정책 분석가이자 사회 기획자인 셰리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이 주장한 내용으로,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도와 권력 관계 간의 여러 층위를 시민 참여의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라는 은유로 시각화하여 제시했다(1969).

아른스타인의 모델은 정책 결정에서의 공공 개입 수준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여덟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장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조작(manipulation)과 치료(therapy)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여(non-participation)의 범주에 속한다. 그 위에 위치한 정보 제공(informing), 의견 수렴(consultation), 회유(placation)는 시민이 정책 과정에 개입할 기회는 있으나 실제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참여(tokenism)에 해당한다. 가장 상위 단계는 점진적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 위임된 권력(delegated power), 시민 주도(citizen control)로의 이행을 지향하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 권한 강화(citizen power)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문화정책에서의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 문화창의부문(CCS,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에서 보는 실질적 참여 방식의 수준을 평가하고 당면 과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여적 대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시민사회 조직이 정책 결정,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보다 포용적이고 투명한 정책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UNESCO, 2022, p.117). 한편,

정치적 의지의 부족, 자원의 제약, 역량의 한계, 권력의 불균형, 중앙집권화, 부패와 같은 구조적 장벽들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개입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참여적 거버넌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성별, 거주 지역, 연령과 같은 요소들이 단순한 총계의 형태로 기록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참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이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동 소유의식, 혁신, 유의미한 성과 창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잠재력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수립과 직결된다. 예술 및 문화 부문의 경우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의 확산(Dupin-Meynard & Négrier, 2022)이나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참여적 문화정책은 그만큼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각 단계의 특성과 의미, 혹은 국제 공공 참여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IAP2)가 명명한 *참여 스펙트럼*(participation spectrum) (2024)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들은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참여적 실천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공히 강조하고 있다(UNESCO, 2022). 전통적인 참여는 주로 토론과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종종 단기적이고 비관계적인(transactional and non-relational)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다. 이는 표면적이고 일방적인 참여를 유도하며(Gaudry, 2011),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실행과 평가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개입 기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며, 책임성과 신뢰 구축의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정책 결과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줄어들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시민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질적 권한 부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정책은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적이고 취약한 형태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참여라는 환상

문화정책에서의 참여 전략이 지니는 한계를 불가항력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민주적 거버넌스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으로 간주해야 옳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기술적 절차로 축소된 채 권력 불균형을 해결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저항하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Brown, 2015). 일례로, 페루는 2020년에 2030년 국가 문화정책(Política Nacional de Cultura al 2030, PNC)을 채택했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약 500명의 문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체 24개 지역 중 9개 지역만을 이 과정에 포함시켰으며, 정책 시행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감시 및 평가 기구도 제공하지 않았다(MINCUL, 2020). 반면 같은 시기,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한 페루 문화단체 연합(Peruvian Alliance of Cultural Organisations, APOC)은 12개 장(chapters)으로 이루어진 공동 옹호 의제(Shared Advocacy Agenda)를 개발했다. 600명 이상의 문화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 참여했으며, 25개의 지역 네트워크 포럼을 활용하는 풀뿌리(bottom-up) 방식의 협력 구조를 통해 14개 지역을 포용했다(APOC, 2019). PNC의 참여 전략이 지닌

지리적 한계, 정책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개입을 보장할 공식적 절차가 부재했다는 사실은 페루 문화계가 이 정책에 거리를 두게 만든 주요 요인일 것이다. 결국, PNC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고, 그에 대한 비판마저 COVID-19 팬데믹과 연이은 국내 정치 위기의 와중에 사그라들고 말았다(Valdizán, 2024).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자면, 뉴욕시 최초의 종합 문화 계획인 Create NYC(2017)의 경우 정책 설계 과정에서 20,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정책 옹호자들 사이에서는 이 계획이 지역 예술 및 문화 생태계에 뿌리 깊게 자리한 형평성, 경제적 접근성, 제도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PCP, 2017; Hyperallergic, 2017; Small, 2017; Bahr, 2020).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계획이 경제적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Chow, 2017). 그에 대한 대응으로, 뉴욕의 문화 노동자들은 “민중의 문화 계획(People’s Cultural Plan, 2017)”을 조직하여 예술 및 문화정책이 조명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대안적 계획은 불평등 구조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뉴욕시의 문화정책 참여 전략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뉴욕시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은 그 이후로 공공 참여의 장을 시의회 청문회(City Council Hearings)에 국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공공 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할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후속 조치의 실행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정책의 도입 배경은 달랐지만, PNC와 Create NYC는 공히 아이디어와 정보를 수집하고 다수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듯 보이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자문(consultation)에 국한된 참여 방식은

진정한 민주주의보다는 그 허상(simulation)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칠 위험이 크다. 일부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지 못한 정책 절차를 정당화하려 들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해당 정책이 널리 지지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Wallner, 2008; Weible, 2023). 시민사회는 이와 같이 껍데기 뿐인 참여 정책의 실패를 폭로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 기준을 요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참여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감시하고, 실질적인 공공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주요 행위자로 기능한다(Talò & Mannarini, 2015).

참여가 구조적 장벽을 극복할 때 비로소 보다 다양한 목소리, 지식,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참여의 양적 증진이 아니라 참여의 질과 다양성, 참여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Reed, 2008). 이렇듯 심층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은 사회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실천을 증진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이 정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Stringer et al., 2006).

**참여가 구조적 장벽을
극복할 때 비로소 보다
다양한 목소리, 지식,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문화 조직과 네트워크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일부 조직은 리더가 대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다른 조직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신뢰란 문화 특정한 개념이기에 조직과 공동체마다 이를 형성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Delfin, 2012). 마찬가지로, 참여가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도 공동체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어떤 그룹에게는 참여가 단순한 민주적 절차이자 형식적인 관행일 수 있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는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아래로부터의 실천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 구조적 인종차별(structural racism),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와 같은 요소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주요 장벽이다(Lescano, 202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 참여는 단순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재분배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참여는 권리이며, 그 형태는 다양하다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볼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감소의 원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하락,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또는 효과적인 참여 기구의 부재와 같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이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그 실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Donosó & Fernández, 2019; Wampler & Touchton, 2017; Alenda-Demoutiez, 2022). 시민 참여의 감소는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민주적 과정이 보다 소수의 의견과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될수록 공공정책이 포괄할 수 있는 문화적 스펙트럼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다(Lechelt & Cunningham, 2020; Belfiore, 2020). 그 결과, 예술 및 문화

부문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례로, 페루 정부는 국가 문화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ulture)를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기구’로 홍보해왔다(MINCUL, 2020). 그러나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수도 거주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아직까지도 원주민 대표의 참여를 필수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4개 지역 모두의 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겨우 지난해의 일이다(MINCUL, 2023). 참여 구조가 이같이 형식에 그칠 경우, 문화정책은 다양한 공동체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 참여는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권이자 문화적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Campagna, 2017). 참여란 예술가와 문화 기관을 정책 결정 과정에 수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Beirak, 2022). 한편, 문화적 권리 기반의 접근법은 강력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권력의 재분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채 담론 차원에 머무를 위험 또한 수반한다. 페루의 국가 문화정책(PNC)은 정책적으로 다룰 공공 문제를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 자체는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는커녕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PNC, 2022). PNC가 승인된 이후의 몇 년간 페루 정부는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조치들을 단행했다(Valdizán, 2024). 예술적 자유의 침해, 목표 지향적 예산

삭감, 문화예술 기관 및 공공 기관의 폐쇄와 해체, 국가 소유 미디어의 조작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가 과연 문화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Lescano, 2024).

참여, 투명성, 책임성은 함께 간다

참여 스펙트럼의 상위 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여와 투명성, 책임성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들은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때 참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반대로 적극적인(proactive) 투명성이 강화될수록 신뢰 또한 증가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 인구의 20% 정도만이 정부에 신뢰를 표했다(UNDP, 2023).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참여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절차적 접근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개입을 보장해 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보다 포괄적인 참여 과정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한다. 이는 권력을 가진 주체, 즉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지고 응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책임성(accountability) 역시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 존재한다.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정부는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비판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정책 실패, 무능, 혹은 부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의무를 지닌다(Sharma, 2008). 그러나, 책임성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재분배를 수반하기에, 문화 거버넌스에서는 종종 간과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책임성 관련 연구들의 경우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érez-Durán, 2024).

미래를 위한 질문

다음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몇 가지의 핵심 사안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시민 참여를 단순한 자문(consultation) 수준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각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문화정책의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이를 문화적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참여를 그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과 가치 체계가 시민사회와 정부 기관에 존재하는가? 또,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있는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파울라 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타라나키 지역의 Ngāti Ruanui, Ngāruahine, Te Atiawa, Ngā Rauru 부족 출신으로, 가족 농장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서 성장했다. 정부, 기업, 마오리 개발, 와이탕이 조약 정착 절차, 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부족 단위의 여러 거버넌스 직책을 수행해왔다. 현재 뉴질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New Zealand – Arts Council of New Zealand Toi Aotearoa)에서 마오리 전략 및 협력 담당 수석매니저로 재직 중이며, 기관의 마오리 예술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예술문화협의회(Pacific Arts and Culture Council) 실무 그룹 의장을 맡고 있으며,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평양 원주민 예술가 축제인 태평양예술문화축제(FestPAC)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이끌고 있다.



하니코 테 쿠라파*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Tūhoe Moumou Kai, moumou Taonga, moumou Tangata ki te pō.

이 속담은 관대함, 보물의 공유, 그리고 민족의 생존을 위한 헌신으로 널리 알려진 Tūhoe 부족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뉴질랜드 플렌티 만 지역의 Te Urewera에서 성장하였으며, 마오리어에 능통하고, Tūhoe Mātauranga(지식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4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예술 전문가로서 환경, 조상, 땅, 우주와의 관계를 아우르는 지식 체계에 대한 마오리 세계관을 제시한다.

뉴질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New Zealand – Arts Council of New Zealand Toi Aotearoa)에서 테 카우파파 오 토이 아오테아로아(Te Kaupapa o Toi Aotearoa) 선임 매니저로 재직 중이다.



*본 에세이는 필자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 본인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마오리의 관점으로 본 원주민 권리 보호, 지식 체계 인정, 리더십 증진

세계가 직면한 작금의 중대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에 무게를 부여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I te timatatanga ko te kore ko ngā pō, ka wehe a Ranginui rāua ko Papatūānuku, ka puta ki te whaiao ki te ao marama, hui e taiki e!

(태초에는 무(無)와 밤이 있었고, 그 후 하늘의 아버지(Ranginui)와 땅의 어머니(Papatūānuku)가 갈라졌으며, 마침내 새벽이 도래하여 빛의 세상이 펼쳐졌도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리!)

이 속담은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토착 언어로 마오리 창세 신화를 담아내고 있다. *테 코레(Te Kore)*, 즉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공허(空虛)’에서 시작하여 *테 포(Te Pō)*, 즉 ‘어둠과 밤의 세계’로 이어져, 마침내

랑기누이(Ranginui) (하늘의 아버지)와 *파파투아누쿠(Papatūānuku)* (대지의 어머니)의 분리를 통해 세상이 완성되는 내용으로, 그들의 자식인 *타네마후타(Tānemahuta)* (숲의 신)는 하늘을 들어 올리고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장식하여 세상에 빛을 가져왔다. 그러나, *타네마후타*가 가져온 것은 빛 뿐만이 아니었다. 세계의 지혜 바꾸니, 즉 *테 케테-투아테아(te kete-tuatea)*, *테 케테-투아우리(te kete-tuauri)*, *테 케테-아로누이(te kete-aronui)*를 되찾은 것이다. 이 바꾸니들은 마오리 세계관의 근본을 이루는 지혜를 담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영역을 아우르는 지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테 케테-투아테아*는 조상들의 지혜와 신성한 의식을, *테 케테-투아우리*는 선과 악, 교육과 배움의 원리를, 그리고 *테 케테-아로누이*는 자연 세계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 간의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며, *티카앙가(tikanga)* (전통적

가치)와 *마타우랑가(mātauranga)* (지식과 지혜)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럼으로써, 마오리들이 태평양(Te Moana Nui a Kiwa)의 아오테아로아(Aotearoa)에서 최초의 민족(*Tangata Whenua*)으로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¹⁰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Te Tiriti o Waitangi) -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¹¹) 이 규정하는 마오리 권리

파케하(Pākehā)¹²가 아오테아로아(Aotearoa)에 도래하기 이전까지, 마오리들은 대지의 수호자(*kaitiaki*)로서 번성하며 풍요로운 언어와 문화를 지닌 자주성 강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항해술로 광활한 대양을 가로지르는 무역 활동을 펼쳤으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식을 이야기(*korero*), 하카(*haka*,¹³), 노래(*waiata*), 직조(*raranga*), 조각(*whakairo*), 구송(口誦) 서사(*karakia*), 보물(*taonga*,¹⁴), 예술 속에 깊이 새겨왔다. 파케하의 도래 후에는 1835년 북부 마오리 부족장들이 서명하고 영국 왕실이 인정한 독립 선언서(*He Whakaputanga*)¹⁵를 통해 주권을 표명하였다. 이어 1840년, 마오리 부족장들은 영국 왕실과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Te Tiriti o Waitangi)를 체결했다. 테 티리티에 의거하여 마오리들은 주권을 유지하며, 대지와 자원, 언어를 포함한 정체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는다.

와이탕이 조약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와이탕이 재판소(Waitangi Tribunal)는 영국 왕실(Crown)이 오랜 세월을 걸쳐, 특히 토지를 수탈하고 마오리 자치권 침해의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조약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약 합의 과정(*treaty*

settlements)은 역사적 위반에 대한 배상으로, 왕실이 이위(iwi, 부족)에게 제공하는 보상 조치를 포괄한다. 합의 내용은 공식적인 사과, 문화적 보상(*cultural redress*), 재정적 보상(*financial redress*)을 포함하지만, 이 합의는 결코 마오리들이 겪은 피해의 총체적 가치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라 할 수 없다. 원주민 권리 변호사인 모아나 잭슨(Moana Jackson)이 2005년에 지적했듯이, 마오리들의 요구는 특권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가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마오리들은 *탕아타웨누아(Tangata Whenua, “땅의 사람들”)*로서 오랫동안 문화적 말살과 토지 수탈을 겪어왔다.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내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균 수명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낮으며,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전체의 단 5%에 그치는 실정인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기반시설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동의 절차(*fast-track consenting process*)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탕아타웨누아(Tangata Whenua)로서의 마오리들의 이해와 권리를 반영하는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마오리들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Te Tiriti o Waitangi)의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¹⁶’을 도입하려 시도했다(이후 부결). 이와 동시에, 정부는 ‘규제 기준 법안(Regulatory Standards Bill)’을 추진하고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 조항을 포함하는 28개의 법률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테 레오 마오리(Te Reo Māori) 발전과 지명 철회 관련 주요 프로그램에 배당된 예산이 철회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아오테아로아에서 테 레오 마오리의 부흥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저항 행위 중 하나였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테 레오 마오리의 부흥 과정은 1972년 마오리어 청원(Māori Language Petition), 1987년 마오리어 법(Māori Language Act), 2019-2023년의 마오리어 부흥 전략(Māori Language Revitalisation Strategy)과 같은 주요 전환점을 거쳐왔다. 특히, 마오리어 부흥 전략(2019-2023)은 뉴질랜드 전역의 공공 부문 최고 경영자들에게 그 실행과 성과 보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의무를 강화했다. 1999년, 데임 히네웨히 모히(Dame Hinewehi Mohi)가 럭비 월드컵 경기에서 뉴질랜드 국가 ‘E Ihowā Atua’¹⁷를 오직 마오리어로만 부른 사건은 당시 뉴질랜드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는 오늘날 양문화화(bicultural)¹⁸의 긴 여정 속에서도 가장 대담하고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코항아 레오(Kōhanga Reo) 유아 몰입형 언어 교육 기관과 쿠라 카우파파 마오리(Kura Kaupapa Māori) 몰입 학교의 설립, 마오리어 방송국 및 텔레비전 채널의 창립, 공공 공간에서 마오리 문화 표현의 확대 등을 통해 테 레오 마오리는 점차 생동하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만 명의 마오리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테 마타티니 축제(Te Matatini Festival)는 뉴질랜드 최고의 마오리 공연 예술을 선보이는 대규모 행사로, 모든 전통 예술을 한데 모아 마오리 문화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오리 공동체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파케하(Pākehā) 시스템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변화해 왔으며, 마오리 시스템 또한 그러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 흐름이 끊기려 하고 있다.

마타리키(Matariki), 즉 마오리 새해를 위한 자금 지원이 줄어든 사실 또한 우려스럽다. 특히, 2022년 *테 카후이 오 마타리키 공휴일법(Te Kāhui o Matariki Public Holiday Act 2022)*의 제정을 통해 마타리키는 뉴질랜드 최초의 공식적인 원주민 공휴일이 되었다. 이는 투호에(Tuhoe) 부족 출신 천문학자이자 운동가인 서 랑기 마타무아(Sir Rangi Matamua)가 주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마타리키를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뉴질랜드 정부는 특히 우주(cosmos), 시간(time), 자연 세계(natural world)에 관한 마오리 지식 체계(mātauranga)¹⁹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24년 11월,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마나 모투 하케(mana motuhake, 자결권)와 랑아티라탕가(rangatiratanga, 지도권)를 표출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오리당(Māori Party) 국회의원 하나-라위리 마이피히-클라크(Hana-Rāwhiti Maipihi-Clarke)가 전무후무한 송가와 하카(haka)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이다.²⁰ 그 다음 주, 뉴질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의 행진인 히코이 모 테 티리티(Hīkoi mō Te Tiriti)가 열렸다. 이 시위에는 마오리와 비마오리(Māori and non-Māori)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약 원칙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정부가 테 티리티(Te Tiriti)와 마오리 권리에 대한 약속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의 핵심 쟁점은 2019년 정부 의뢰로 작성된 헤 푸아푸아 보고서(He Puapua Report)가 제시한 로드맵이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2010년 채택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실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는 2040년, 즉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Te Tiriti o Waitangi) 체결 200주년이 되는 해까지 마오리의 자결권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마오리에게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공개 직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반대파는 이를 두고 뉴질랜드를 분리주의로 급격히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반면 지지층은 테 티리티 하에서 보장된 마오리 권리를 인정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보았다.

지식, 예술, 문화의 탈식민화

마오리들에게, 탈식민화란 지식의 인식과 표현, 공유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구술 전통(oral traditions), *와카파파(whakapapa, 계보)*, 영적 신념(spiritual beliefs), 조상 전래의 지식(ancestral knowledge)을 정당한 지식 체계와 표현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오리 세계관의 중심에 자리한 집단적 가치(we/us)은 그에 상응하는 서구적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오리들은 세상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며, 공동체 중심적 사고(we/us)와 개인주의적 사고(I/me) 사이의 차이는 마오리를 원주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무엇보다, 탈식민화란 마오리들이 스스로의 서사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을 의미하며, 외부의 기준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2019년부터, 뉴질랜드의 국가 예술 개발 기관인 뉴질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New Zealand)는 여타 기관과의 협력 하에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Te Tiriti o Waitangi)의 이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를 위해 마오리 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테 카우파파 오 토이 아오테아로아(Te Kaupapa o Toi Aotearoa)를 시행하고 있으며,

*와카 호우루아(Waka Hourua)*²¹ 모델을 활용하여 예술 분야에서 파트너십, 마오리 리더십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예술과 문화의 탈식민화는 일거의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다. 기존 지식을 해체하고(unlearning), 새로운 시각으로 학습하며(relearning), 원주민의 목소리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다 함께 포괄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주민과 협력하여 원주민의 지식 체계, 관점, 정책, 실행 계획을 포괄하는 승인 환경(authorising environments)을 공동으로 설계(co-design)해 내야 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원주민과 협력 하여 원주민의 지식 체계, 관점, 정책, 실행 계획을 포괄하는 승인 환경(authorising environments)을 공동으로 설계(co-design)해 내야 한다. 그러한 변화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창의적 기관, 대학, 갤러리, 박물관 및 기타 공공 기관들이 원주민 지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실천을 해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²²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하되 간섭은 지양하는 방법이 때로 최선일 수 있다.

마오리들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 보장은 단순한 과거의 보존이 아니라 마오리를 비롯한 여러 원주민 문화권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는 미래의 구상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탈식민(post-colonial)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 세대가 흐른 뒤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인지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를 비롯한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찰을 요구할 때다:

예술과 문화가 변화의 강력한 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나 공동체는 과거에 자행된 불의(injustice)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돌아본 적이 있는가? 또한, 창조 예술(creative arts)은 그같은 불의의 형성 혹은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제도적 운영 방식이 양문화주의(biculturalism)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포용하도록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아가, 국가 예산 지출이 양문화주의의 증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써 우리가 공유하는 정체성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故) 테 아리키누이 키잉이 투헤이티아 포타타우 테 웨로웨로 테 투아 위투(Te Arikinui Kiingi Tuheitia Potatau Te Wherowhero Te Tua Whitu)²³는 코타히탕가(kotahitanga, 연대와 통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저 매일, 하루 종일 마오리로 살아가라.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강하다.” 이 말을 희망의 메시지로 공유하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¹⁰ 아오테아로아 (Aotearoa: 길쭉한 흰 구름의 땅)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어 명칭.

¹¹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¹² 유럽계 비마오리

¹³ 하카(haka)는 방문하는 부족을 환영하는 전통 의례였으나, 그와 동시에 전투에 나서는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도 수행했다. 보통 집단으로 수행하며, 구호(chanting)에 맞추어 발 구르기, 손동작, 얼굴 표정 등의 동작을 결합한다. 오늘날의 하카는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중요한 행사에서 공연한다.

¹⁴ 유물

¹⁵ 뉴질랜드 부족연합의 독립선언서

¹⁶ 최종 결과는 법무위원회 심사 및 대중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¹⁷ God Defend New Zealand | Aotearoa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국가로, 먼저 마오리어로 “E Ihowa Atua”로 시작되며, 이어 영어로 불린다.

¹⁸ 양문화주의(Biculturalism)는 한 사회 내 두 개의 독립된 문화 집단의 인정, 공존, 진흥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형평성과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Aotearoa New Zealand)의 맥락에서 양문화주의는 보통 마오리(Māori, 원주민인 탕가타 휘누아[tangata whenua])와 파케하(Pākehā, 비마오리로 특히 유럽계 후손을 의미함) 간의 관계를 지칭한다.

¹⁹ 마오리족 고유의 지식 및 인식 방식

²⁰ <https://www.rnz.co.nz/news/political/534187/video-te-pati-maori-mp-hana-rawhiti-maipi-clarke-reacts-to-haka-heard-around-the-world>

²¹ 와카 호루아(Waka Hourua)는 마오리(Māori)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장거리 해양 항해에 사용되었던 쌍동선(double-hulled canoe)을 의미한다. 이 배는 파트너십, 균형, 협력을 상징하며, 두 개의 선체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노력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²²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와 같은 국제 협약은 전통 유물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문화적 관행을 제한하고, 타운가(taonga, 성스러운 물품)나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재료와 같은 원주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제13회 태평양예술문화축제(Festival of Pacific Arts & Culture, FestPAC)에서 마오리(Māori) 예술가들은 ‘퍼밋 디클라인드(Permits Declined)’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냈다. 현재 제네바에서 열릴 제28차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meeting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와 2025년 CITES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에서 관련 문제와 기회를 논의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²³ 키잉이탕이(Kiingitangi, King Movement)는 마오리족(Māori)의 통합하는 코로와이(korowai)를 의미하며, 여기서 코로와이는 키잉이탕가(Kiingitanga) 운동이 마오리족 전체에 제공하는 비물질적, 은유적 장막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마오리족의 단결된 마나를 유지하고 돌보는 정신적 보호막이다. 1858년에 설립된 이 운동은 포타타우 테 웨로히어로(Pōtatau Te Wherowhero)의 지도력 아래 모든 부족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 주요 목표는 파케하에 대한 토지 매매를 중단하고, 부족 간 전쟁을 멈추고, 파케하 식민지화에 맞서 마오리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난 160년과 같이 키잉이탕가의 역할은 현재 8대 군주인 쿠이니 응가 와이 호노 이 테 포(Kuini Nga Wai Hono i te Po) 아래에서도 여전히 모든 부족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된다.

마리추 G. 텔라노

필리핀

현재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 사무차장(Deputy Executive Director)로 재직 중이며, NCCA 산하 기획연구정책실(Research, Planning, Policy Office) 실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 창의산업개발위원회(Philippine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Council) 위원이자, 바탄예술고등학교(Bataan High School for the Arts, Philippines) 이사이다.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에서 국가의 예술 및 문화유산과 창의산업의 보존, 발전, 진흥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문화교육, 필리핀 문화 가치 프로그램(Filipino Cultural Values Programme), 필리핀 문화통계 프레임워크(Philippine Cultural Statistics Framework) 채택, 문화지도 작업의 제도화, 지역 문화예술위원회(Local Culture and Arts Councils)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다. 축제, 전시, 연구, 학술대회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조명하고자 노력 중이며, 화학공학 학사 학위와 교육행정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를 엮어가는 여정: 과거를 기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다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의 군도 국가 필리핀은 110종 이상의 원주민 민족언어 집단을 포함하는 다문화 사회로, 원주민, 기독교,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다. 여러 공동체들은 고유의 언어, 문화 전통, 실천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후대에 전승하여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s)로서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토양은 필리핀의 국가 정체성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기에, 급변하는 시대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그 보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에는 활기찬 현대 문화창의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이 존재한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이 2024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 창의 경제(creative economy)는 전통 관습, 예술, 공예, 요리, 축제, 기념행사를 비롯해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산업 부문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했으며 720만 명의 전문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창의 경제 종사자 중 35.5%가 창의 경제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인 전통 문화 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현대적 창조성과 뿌리깊은 문화유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필리핀 문화의 독창적인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선사 시대의 전통, 식민지 역사²⁴, 현대적 영향이 얹혀 빚어낸 문화적 직조(cultural weave)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필리핀은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거의 보존과 현재의 수용 간의 긴장이라는 교차로 선상에 서 있다. 변화의 격랑 속에서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일례로, 필리핀의 원주민 문화와 유산이 최근 들어 더 주목을 끌면서 패션 및 문화 산업 내에서는 ‘문화 감상(cultural appreciation)’과 ‘문화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례로, 2020년 8월, 지노웅 사우스 코타바토(Ginoong South Cotabato) 패션쇼에서 디자이너 제어슨 데마비바스(Jearson Demavivas)가 랑 둘라이(Lang Dulay)의 초상이 담긴 의상을 선보인 일을 들 수 있다. 랑 둘라이는 티보리(T'boli) 원주민 사회 출신으로, 필리핀 국가생존문화재(National Living Treasure)로 지정된 존경받는 직조가이다. 그러나, 티보리 문화에서는 그녀의 형상을 의류나 티날락(T'nalak) 직물에 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 디자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랑 둘라이의 유족들은 공개적으로 이 디자인이 문화적 침해(cultural violation)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 일부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원주민들의 문화적 규범뿐만 아니라 1997년 제정된 원주민 권리법(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IPR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거의 보존과 현재의 수용 간의 긴장이라는 교차로 선상에 서 있다. 변화의 격랑 속에서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전통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화 교류를 통해 현대 예술과 생동하는 문화가 상보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이렇듯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촉진해 주는 교육 공간은 어떤 곳일까?

세대간 지식 전수를 위한 기획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기획 중 하나로 1995년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가 출범시킨 살아있는 전통 학교(Schools for Living Traditions, SLTs)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교육 공간으로, 생동하는 문화의 세대 간 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젊은 세대의 전통 기술 습득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SLT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식적 교육 방식(non-formal teaching approach)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지역 사회의 전통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존경받는 장인(cultural masters)이나 원로(elder)들이 교육을 주도한다. 대략 6개월에 걸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회관 또는 문화 장인의 자택에서 체험 중심 교육(experiential learning)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400개의 살아있는 전통 학교(Schools for Living Traditions, SLTs)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속 단계로,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NCCA)는 문화 장인(cultural masters)들과의 협력 하에 STL의 역할을 창의적 발전의 중심지, 지역사회 지도자 역량 강화 공간, 생계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확장했다. 그 결과, 오늘날 SLT는 직조(weaving) 및 공연 예술(performing arts)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를 수용하는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남코타바토주(Cotabato)의 세부 호수(Lake Sebu)에 위치한 SLT는 티날락(T'nalak) 직조 기술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전통 예술

그 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문화를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전역에서 30개소의 살아있는 전통 학교가 새로운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공에 힘입은 STL 모델은 2021년 유네스코(UNESCO) ‘우수 문화유산 보호 실천 사례 목록(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에 등재되기도 했다.

SLT 생태계는 교육 혁신, 문화 보존, 지역사회 참여가 이상적으로 융합된 모델을 보여준다. 남코타바토주(South Cotabato)에서 열리는 티날락 축제(T’nalak Festival)와 같은 행사들은 티보리(T’boli)족의 직조 유산을 선보이며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장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랑 둘라이(Lang Dulay)와 바바라 오폭(Barbara Ofong)과 같은 저명한 티보리 직조 장인(master weavers)은 필리핀 국가생존문화재(Gawad sa Manlilikha ng Bayan, National Living Treasures Award)를 수상하며 예술적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융합의 예시는 SLT에 국한되지 않는다. 필리핀 대학교 미술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ollege of Fine Arts) 등의 교육 기관에서도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예술 교육을 장려하며 학생들이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원주민 전통과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전통 학교(Schools for Living Traditions, SLTs)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은 여러가지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관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STL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일이다. 구술 역사(oral history)에 의존하는 전승 방식은 단절의 위험이 큰 데다가, 젊은 세대가 관심을 잃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전통의 지속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압력(commercial pressures) 역시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원주민 문화가 외부 시장의 수요에 맞춰 변형될 경우 전통적인 실천 방식이 변질되거나 그 문화적 본질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예술과 공예(Intellectual Property, IP)의 보호 문제 또한 시급한 현안이다. 원주민 공동체의 동의 없이 그들의 예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적절한 저작권 표기(attribution) 또는 보상을 배제한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주민 공예의 지속가능한 상업화

다행히도, 전통 공예를 현대적 환경에 적응시키면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하빙 필리피노(Habing Pilipino)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 섬유연구소(Philippine Textile Research Institute)가 출범시킨 이 프로그램은 티날락(T’nalak)과 같은 원주민 섬유의 보존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현대적인 의류 및 홈 데코(home décor)에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전통 직조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매 산업 부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주민 예술성과 공예를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다. 필리핀의 소매 브랜드 쿠티라(Kultura)는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수공예 직물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원주민 장인들과 직접 협력하며 문화 표현의 집단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활용의 결과물이 원래의 공동체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나아가 장인들의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원주민 공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존중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패션 산업과 정부 기관은 원주민의 지적 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공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2017년 필리핀 지적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과 필리핀 원주민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NCIP)가 발표한 공동 행정명령(Joint Administrative Order)에 따라 원주민 지식 또는 문화 표현을 활용했을 경우 그 기원을 명확히 공개하고 NCIP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세부 호수 티날락(Lake Sebu T'nalak)과 등의 제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등록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주민 공예의 독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혜택이 해당 공동체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필리핀 패션 연합(Philippine Fashion Coalition)은 드라 살-세인트 베니데 대학(De La Salle-College of Saint Benilde)

지적재산관리센터(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와 협력하여 패션 산업 내 지적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과 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주민 디자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변하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과 대면해야 한다. 살아있는 예술(living arts)과 현대적 창의성(contemporary creativity) 사이의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혁신적 전략이 필요할까? 또한, 미래 세대가 문화유산의 불씨를 이어받아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포용하는 서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²⁴ 필리핀의 식민 역사는 300년이 넘는 스페인 지배 시대(1565-1898)와 그보다 짧은 미국 식민 통치 시대(1898-1946)를 포함하며, 이 두 시기는 필리핀의 문화, 통치 구조,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라르스 에베르트

벨기에

유럽의 문화 네트워크, 기관, 예술가, 활동가 및 학자들의 네트워크인 컬처 액션 유럽(Culture Action Europe)의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이다. 유럽 문화 분야와 정책 입안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지식 공유를 위한 조직인 컬처 액션 유럽은 문화를 독립적인 분야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기여하는 매개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공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문화센터 H401의 공동 디렉터(Co-director)와 유럽예술 교육기관연맹(The European League of Institutes of the Arts)의 부국장(Deputy Director)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의 변혁적 역할에 대한 신념을 참여적 실천(participatory practices)과 예술 기반 연구(art-based research)에 대한 관심과 경험으로 발전시켜 왔다. 신학 학위(postgraduate degree in theology)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경영 및 리더십을 가르쳐 왔고, 강연 및 워크숍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글을 출판하고 있다. 또한, 문화, 교육,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실천에서 정책으로, 그리고 다시 실천으로: 유럽에서의 문화민주주의 증진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해 있는 각종 혼란과 변화 속에서, 예술과 문화는 의미를 찾고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진보(progress)의 비전에 의존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상상은 시민들이 자유를 행사하고 민주적 삶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해 준다. 예술과 문화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민주적 주체로서의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에서는 문화 자체가 경쟁적인 정체성과 (때로는 비민주적이기도 한)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 실정이다. 개인화된 소비와 주문형(on-demand) 경험이 부상하면서, 문화에 대한 공공적인 논의와 공유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10월, 유럽 내 주요 문화 네트워크, 기관, 예술가, 활동가, 학자, 정책결정자의 대표적인 네트워크라 할 문화행동유럽(Culture Action Europe,

CAE)은 설립 이후 최초로 문화 현황 보고서(State of Culture Report)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한 가지는, 비록 문화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성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정의를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촉진하는 접근 방식이라 규정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형성 과정에서 공동체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다 포용적인 문화 환경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1980년대에 등장한 문화민주주의 개념은 보다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문화 환경의 조성을 지향한다. 시민들이 문화 소비자로 남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 창작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문화 기관과 공동체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지역특정적 지식, 전통, 다원적 의견의 포용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함께 창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 모델은 1950년대 후반 확립된 ‘문화의 민주화(democratisation of culture)’ 모델과 대조를 이룬다. 전통적인 문화 민주화 모델은 문화유산과 예술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거나 재정의하는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않는다. 대신, 문화가 하나의 단일한(monolithic)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문화 민주화의 전통적 하향식(top-down) 모델로부터 포용성과 공동 창작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날로 다양해지는 유럽의 문화적·인구학적 환경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은 전통적인 문화 권력층(gatekeepers)을 우회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기반의 풀뿌리 문화 또는 소외된 문화의 표현을 배제하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민, 사회 복지, 팬데믹 대응, 성평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쟁점을 둘러싼 유럽 사회 전반의 양극화(polarisation)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하락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다양한 의견의 포용

문화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가 의사 결정을 하는지, 누구의 의견이 우선시되는지, 그리고 기관, 자금 지원자, 정책 결정자 등이 어떻게 문화를 정의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문화 현황 보고서(State of Culture Report)는 참여적 문화 시스템(participatory systems in culture)의 개념이 민주적 참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개개인 차원에서의 문화 자원 접근권 뿐 아니라 문화적 의제를 형성하고 창조적으로 기여할 권한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한다: “진정한 참여란 단순히 초대를 받아들이는 행위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즉, 참여란 초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며, 의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며, 자신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다” (p.105).

문화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가 의사 결정을 하는지, 누구의 의견이 우선시되는지, 그리고 기관, 자금 지원자, 정책 결정자 등이 어떻게 문화를 정의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브뤼셀의 카이극장(Kaaitheater, KAAI)은 문화민주주의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1977년 브뤼셀 운하 지대(canal zone)에 설립된 이 극장은, 현재 전체 거주자의 40%가 외국 국적자인 초다문화(hyper-diverse) 지역에 자리해 있다. 이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긴장이 교차하는 이 지역에서, KAAI는 보다 민주적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극장의 거버넌스, 운영 방식, 프로그램 기획 전반에 변화를 주는 결정을 택했다.²⁵ “How to Be Many?”(어떻게 다수가 될 것인가?)라는 모토 아래, KAAI는 더욱 다양한 방문객, 예술가, 서사,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다층적인 도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극장의 프로그램 기획과 전반적인

운영 상의 변화를 관통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화두를 제기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한 만남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다수가 될 것인가? 다양한 사랑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세대를 초월한 연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도시 차원에서의 다수성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들은 KAAI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사유의 틀을 제공하며, 극장이 추구하는 민주적, 다원적 운영 방식의 기반을 형성한다. KAAI의 공동 예술감독인 아그네스 콰켈스(Agnes Quackels)와 바바라 반 린트(Barbara Van Lindt)는 극장을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다성적 극장(many-voiced theatre)”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공동체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극장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문화 리더, 예술가, 관객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주체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KAAI는 문화 생산의 전통적인 위계 구조에 도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21년 유럽연합 이사회 포르투갈 의장국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국제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속 문화: 미래를 위한 경로 설계(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Designing Paths for the Future)”가 채택한 포르토 산토 헌장(Porto Santo Charter)의 비전과도 부합한다. KAAI의 실천은 공연예술의 민주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 거버넌스와 의사 결정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기존 제도권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긴장

그러나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제한된 자원 접근성, 제도적 관성, 기존의 문화적 규범을 방어하려는 문화 권력층(gatekeepers), 그리고 협소한 관점에서

문화를 국가 정체성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세력 등의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가 실질적인 권력 역학의 변화와 맞물리지 못할 경우, 문화 접근성은 유럽처럼 문화 부문이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에서조차 제약될 수밖에 없다. 문화민주주의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는 권력 관계의 재구성을 의미하지만, 그 실질적 구현 과정에서는 기존의 문화 및 정치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행동유럽(Culture Action Europe, CAE)은 유럽 전역에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²⁶ 이에, 유럽 최대의 공공극장 네트워크인 유럽연극협약(European Theatre Convention, ETC)은 *Resistance Now: Free Culture* 캠페인을 출범시켜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공격과 규제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론화의 노력에 앞장섰다. 유럽 전역에 걸친 이 운동은 예술적 자유 침해 사례와 문화 기관의 자율성 약화 현상을 조명하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유럽 39개국에서 200개 이상의 주요 문화 기관이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실은 사안의 긴급성을 대변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헝가리에서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문화 제약적 특성, 프랑스·독일·헝가리·네덜란드에서의 예산 삭감,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국립 문화 기관장들의 부당 해임 사건, 문화 행사에 대한 폭력적 방해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24년 11월 소피아에서 열린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희곡 『무기와 인간(Arms and the Man)』 초연이 강제 중단된 사건은 문화적 검열과 정치적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각에서 이 작품의 1885년의 세르비아-불가리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반(反)불가리아적이라 비판하며 공연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보인 것이다.

비판적 성찰의 공간으로서의 문화

문화 현황 보고서(State of Culture Report)는 “문화란 단순히 유권자나 소비자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와 권력을 지닌 ‘사회’라는 개념을 구현한다”(p.126)고 강조한다. 이민 위기,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 쟁점들이 유럽에서 포퓰리즘과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문화는 이념적·감정적 간극을 좁히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음악가, 작곡가, 프로듀서, 시각 예술가인 브라이언 이노(Brian Eno)는, 급속히 변화의 와중에 점점 더 파편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문화는 사회를 결속하는 ‘홀륭한 대화(fantastic conversation)’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강조한다.

포르투갈 포르투를 거점으로 한 사회·문화 단체 PELE – Associação Social e Cultural의 활동은 문화의 이같은 변혁적 잠재력, 즉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PELE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술과 시민권 실험실(Art and Citizenship Laboratory)”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사회 재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예술 창작과 시민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정치운동가인 아우구스토 보알(Augusto Boal)이 창안한 “억압받는 자의 연극(Theatre of the Oppressed)”과 같은 참여적 연극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위한 연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PELE의 접근 방식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화를 위한 도구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연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가시화하고, 토론을 촉진하며,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즉, PELE의 활동은 공동 창작과 직접적 개입을 통해 문화를 민주화함으로써 문화가 토론과 포용의 강력한 장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문화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자체적으로도 민주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응하고 문화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변혁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문화민주주의를 단단히 뿌리내리고, 또 모든 공동체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면서도 회복력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럽 및 전 세계 문화 생태계 전반에서 걸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

어떠한 역량 강화(capacity-building)가 필요하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

기존의 낡은 자금 지원 체계는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까?

이념적 차이를 넘어 지식을 공유할 새로운 방식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²⁵ 2027년까지, 카이극장(Kaaitheater)은 생크트레트 광장(Square Saintelette)에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극단은 해당 기간 동안 브뤼셀 및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극장과 협력 기관에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²⁶ <https://cultureactioneurope.org/news/call-for-artistic-freedom-and-autonomy-of-the-arts/>

마르셀라 플로레스 멘데스*

멕시코

멕시코 디지털문화센터(Centre de Cultura Digital, Mexico) 센터장(Director)으로, 문화부(Ministry of Culture)가 진행한 멕시코 크리에아티보: 지속가능한 문화 발전(México Creativo Desarrollo Cultural Sostenible, 2019-2021)을 비롯해 엘 룰 디지털 팩토리(Fábrica Digital El Rule, 2018) 와 엘 룰 기술 실험실(Laboratorio de Tecnologías El Rule, 2019)의 감독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디지털문화센터(Centro de Cultura Digital)에서 문화 프로그램 부국장(Deputy Director of Cultural Programming)으로 재직했다.



엘 포로 데 테아트로 콘템포라네오(El Foro de Teatro Contemporáneo)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바르셀로나 연극 연구소(Instituto del Teatro de Barcelona) 산하 무대예술 고등학교(Escuela Superior de Artes del Espectáculo) 및 카탈루냐 공과대학교(Universidad Politécnica de Cataluña)에서 조명 기술을 수학했다. 디자이너로서 멜라니 스미스(Melanie Smith)의 작품 *Farsa y Artificio*(2019)의 조명 디자인, 라보라토리오 아르테 알라메다(Laboratorio Arte Alameda)에서 열린 알레 데 라 푸엔테(Ale de la Puente)의 전시 *Esperando el relámpago*(2018)의 조명, *Conejoblanco Galería de Libros*(2006-2012) 감독, Ambulante의 아이디어 포럼(Foro de Ideas)에서 기획된 *Nuevos atajos y otros caminos hacia la participación colectiva*(2015)의 프로그램 구성 및 큐레이션을 담당했다.

*본 에세이는 필자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 본인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저항을 통해 세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

그 태초에, 인터넷 2.0은 수평성(horizontality)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듯했다. 해방, 민주주의, 연대(solidarity)의 이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온전히 실현하고 자가 출판(self-publishing), 군집 지성(hive intelligence),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동원(social mobilisation)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플랫폼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0년대 초, 멕시코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YoSoy132(#IAm132)와 같은 지역적 운동이 일어났다. 국제적 흐름과도 그 결을 같이 한 이 운동은 MENA 지역의 이른바 ‘아랍의 봄(Arab Spring)’, 스페인의 15M 운동(15M), 캐나다 퀘벡(Quebec)과 칠레 산티아고(Santiago)의 학생운동과 연대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약속했던 수평성(horizontality)은 여러 행위자들이 장악해 버렸으며, 그 결과 디지털

세계는 불투명성(opacity), 자원 수탈(extractivism),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감시, 검열, 처벌, 포스트 트루스(post-truth)가 만연한 생태계로 변화했다.

협력을 저해하고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집단적 실천(collective practices)의 제한적 논리가 초래한 이 같은 변화는 우리의 감정, 소통, 사회적 관계(sociability)를 상품화(monetisation)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할 때, 과연 기술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디지털의 타락에 대한 비판적 저항(critical opposition)은 급진적으로 포용적인 세계만들기(radically inclusive worldmaking)를 요구하며,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여러 조직 공동체(organised communities) 활동의 촉진을 통해 독점적 구조(monopolies)를 뒷받침하는 정보 교환 장벽의 해체를 그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기술적 ‘진보(progress)’의 지배 논리를 내세워 가속적이고 기계적이며 생산 중심적인 방식의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를 설계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 구조가 생겨났으며, 이것이 주체성(subjectivity)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수단이 목적 자체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사상가 이반 일리치(Ivan Illich)는 1970년대에 쓴 공생성(conviviality)에 관한 에세이에서 이미 이 같은 현상을 ‘반생산성(counterproductivity)’이라 명명하면서 기술이 본래의 목표를 배반하는 과정, 즉 수단이 목적 그 자체로 변형되는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일리치가 그 대안으로 제안하는 ‘공생 사회(convivial society)’는 개인, 도구, 사회 간의 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정립하고 수단과 목적 간의 새로운 균형을 상상하는 과정을 말한다(2006, p.374). 공생 사회에서, 도구는 특정 전문가 집단(specialists)의 독점적인 향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와 통합된 개인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자율성(autonomy)의 가치와 도구적 원칙(principle of instrumentality) 간의 균형 회복이다. 즉, 사회가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와 기술: 필수적 관계의 융합

이미 일상이 된 인터넷은 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에 따라 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회 및 문화적 변화의 과정에 적용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했다. 중국 출신 철학자이자 철학·기술 연구 네트워크(Philosophy and Technology Research Network)의 창립자인 유크 후이(Yuk Hui)는 미래를 분절하라: 기술 다양성에 관하여 (Fragment the Future: Essays on Technodiversity)(2020)에서 기술을 새롭게

사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기반을 구성하는 존재론적·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안한다.

기술은 문화와 자연이 상호대립하는 이분법적 사고(binary opposition) 체계를 재사유하게 한다. 이러한 대립 구조는 지배 체계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당위적 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문화와 기술은 본질적으로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융합체(amalgam of vital relationships)이다. 문화가 기술, 지식, 실천, 삶을 매개하는 과정들의 생태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한다면, 문화의 보호와 증진은 곧 삶 자체를 보호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재, 문화는 이미 본래의 변혁적 힘(transformative force), 즉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잃은 상태이다. 자유는 소비(consumption)로 전락했으며, 혁신은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 즉 기술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들 등에 얽고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반 일리치(Ivan Illich)는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성스러움(sacred)’으로 자리잡았으며, 인류는 기술 발전에 일종의 구원적(redemptive) 힘을 부여했다고 지적한다.

이제 속도를 늦추고(slow down) 기존의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며 의식(awareness), 비판(criticism), 자율성(autonomy)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것이다.

기술의 지정학: 식민성과 저항

인식론적 리듬(epistemic rhythms)의 차이를 드러내는 여러 사례에서 보듯,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서는 세계와 삶의 다양한 이해 방식을 보존하려는 역사적 노력의 맥이 이어져 왔다. 그런 한편, 식민화의 과정은 신념, 문화, 언어, 기술 간의 단절과 충돌을 초래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파올라 리카우르테(Paola Ricaurte)는 식민주의란 결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권력의 매트릭스(matrix of power)로 작동하는 엄연한 현실임을 지적한다. 식민성의 권력구조는 노동, 자원, 생산물, 성(sexuality), 제도, 폭력의 형태, 상호주관적 관계(intersubjective relations), 지식, 의사소통 방식의 통제로 유지된다.

리카우르테는 페루의 사회학자 아니발 키하노(Aníbal Quijano)가 권력의 식민성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the Coloniality of Power) (2023)에서 제안한 개념인 ‘식민성(coloniality)’을 재조명한다. 키하노에 의하면, 식민성은 사회기술적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s)을 통해 실현되며 인식론적·물질적으로 자본주의적(capitalist), 서구적(Western), 근대적(modern), 가부장적(patriarchal) 방식의 존재(being), 사고(thinking), 감각(feeling), 실천(doing), 삶(living)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2023, p.17). 그럼으로써, 식민성은 인종(race), 성·젠더(sex-gender), 계급(class)의 차이를 기반으로 권력의 비대칭성을 유지하는 지식 생산과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 몇 년간에는 과학기술의 권력 중심(power nodes)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는 북미 지역 전체 데이터 센터(Data Centres)의 단 1.4%만이 위치해 있는데 (Data Center Map, 2021), 이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의 기술적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사람들의 디지털 매체 사용 습관을 상품화하며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흐름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를 향해 일방향적으로(unidirectional) 이동하는 구조를 보인다. 그 결과, 지식(knowledge)과 정보(information) 사이의 격차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적인 흐름은 ‘알고리즘적 진실(regime of algorithmic truth)’의 체계를 형성한다 (Ricaurte, 2022, p.30). 팬데믹 이후 데이터화(datafication) 과정은 가속화 일로를 걸었으며, 사용자들의 데이터는 거대 기업의 손에 넘어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수탈(dispossession)하고 타자성(otherness)을 은폐하는 세계관과 정치 체계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삶(social life)에 계속 참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의 수탈에 동의해야 하는 것일까? 일견, 거부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같은 불가능성(impossibility)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resistance)이 등장했다. 기술 저항(techno-resistance), 자율적 기술 인프라(autonomous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퍼머컬처 기술(permacultural technologies), 협동주의(cooperativism), 사이버-트랜스-해크 페미니즘(cyber-trans-hackfeminisms), 테퀴올로지(tequiologies)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하나로, 수르시에도(Sursiendo)²⁷ 조직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집단적 디지털 권리(collective

digital rights)를 보호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와 같은 재존(re-existence)의 실천은 존엄한 삶과 돌봄의 방식을 모색하며, 기술적 자율성과 공동체 조직을 위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성원들은 보다 존엄하고 기술 다원적인(technodiverse)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리조매티카(Rhizomatica)²⁸가 있다. 이 단체는 주로 농촌 및 원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무선 통신과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시민 단체(civil association)이다. 원주민들의 기술적 지혜(technical wisdom)는 망각에 저항하며,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그 면면을 이어왔다. 콜롬비아의 예술가 바르바라 산토스(Bárbara Santos)는 아마존 지역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간한 책 『치유로서의 기술(Healing as Technology)』의 에필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은 우리의 역사가 검열하고 소멸시켜 온 것들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오랜 문화들이 이어온 저항에 감사를 표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원주민 지식의 폄하를 것을 멈추고, 그들의 언어를 살아있는 말(living words)이자 총체적 과학(holistic science)으로 인정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다양한 문화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기술을 창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 (산토스, 2019, p.11).

향수(nostalgia)나 민족주의(nationalism)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삶을 위해, 삶과 함께 기술을 수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인종주의(racism)와 같은 지배 관계를 재생산하는 전쟁과 죽음의 기술(technologies of death and war)에 반하는 실천으로서. 기술적 저항(technological resistance)은 행위성과 창조적 힘의 회복, 신체와 언어의 융합 촉진, 타자, 차이, 다양성에의 개방성을 뜻한다. 유크 후이(Yuk Hui)가 지적하듯, 우리는 “기술성(technicality)의 환원불가능한 다층성을 긍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기술을 재전유해야 한다(reappropriate technology)” (2020, p.78).

파올라 리카우르테(Paola Ricaurte)이 보는 미래는 조상적(ancestral)인 동시에 끝없는 경합의 장(territory in dispute)이다. 우리는 비판적 성찰을 통해 기술을 소비 도구와 기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을 네트워크(networks)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술적 힘(technical force)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참여자(active, flexible participants)가 되어야 하며, 교환(exchange)과 창조(invention)의 힘을 기억하고, 저항(resistance)의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 ‘타자가 되는 법(learn to be others)’을 배워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는
기술의 수용은 예술,
문화, 지식의 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저항의 도구를
제공하며, 초국가적인 문화
협력을 촉진한다.**

디지털을 넘어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는 기술의 수용은 예술, 문화, 그리고 지식의 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저항의 도구를 제공하며, 초국가적인 문화 협력을 촉진한다. 일리치(Illich)가 주장하듯이 기술적 도구가 사회의 실제적 요구를 중재해야 한다면 현재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역사적 순간에, 권력의 축적보다는 공유를, 착취 대신 돌봄을 선택하고 자연을 도구화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기술(technology)’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계 속에서 인식하고 우리 뜻에 맞게 조정해온 지식 체계(body of knowledge)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기술(technologies of death)에 기반한 새로운 집단학살(genocides)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원격 조종 드론이 사람을 살해하고, 기아(hunger)와 질병(disease)이 전쟁 무기로 등장하며, 지식의 중심(centres of knowledge)이 폭격당하는 등 지구는 말 그대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기술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삶의 수호를 기술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할 수는 없을까? 지금 우리는 스스로 소유한 도구들을 사용해 이 시대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바스크(Basque) 문화 연구자 마리아 Ptqk(María Ptqk)가 2023년 11월 CCD 라디오(CCD Radio)²⁹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삶의 본질 자체가 저항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삶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²⁷ <https://sursiendo.org/>

²⁸ <https://www.rhizomatica.org/>

²⁹ <https://soundcloud.com/ccd-radio/maria-ptqk>

하즈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올라노스키, 박사

Barcelona City Council | 바르셀로나 시의회. *Cultural Rights Plan of Barcelona* / 바르셀로나 문화적 권리 계획 (2021). [온라인 자료]: <https://www.barcelona.cat/culturaviva/sites/default/files/2021-05/Pla%20Drets%20Culturals.pdf> (검색일자: 2025년 1월 8일).

Beatriz Barreiro & Alfons Martinell | 베아트리스 바레이로 & 알폰스 마르티넬. *Cultural Rights: Towards a New Generation of Public Policies. Situation and Commitments of Spa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문화적 권리: 새로운 세대의 공공정책을 향하여. 스페인의 현황과 국제사회와의 약속 (2020). Alternativas Foundation.

Orian Brook, Dave O'Brien & Mark Taylor | 오리안 브룩, 데이브 오브라이언 & 마크 테일러. *Culture is Bad for You* / 문화는 우리에게 해로운가? (2023). Liburuak.

Marilena Chaui | 마릴레나 샤우이. *Cultural Citizenship: The Right to Culture* / 문화 시민권: 문화에 대한 권리 (2013). Buenos Aires, RGC Editions.

Government of Spain | 스페인 정부. *Law on the Public Culture System of the Canary Islands* / 카나리아 제도 공공문화체계법 (2023). [온라인 자료]: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23-12083> (검색일자: 2025년 1월 8일).

Government of Spain | 스페인 정부. *Navarre Regional Law on Cultural Rights* / 나바라 지역 문화적 권리 법률 (2019). [온라인 자료]: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4-15431 (검색일자: 2025년 1월 8일).

UNESCO | 유네스코.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ONDIACULT* | 세계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회의 MONDIACULT 2022 (2022, 멕시코). [온라인 자료]: <https://www.unesco.org/en/articles/mondiacult-2022-states-adopt-historic-declaration-culture?hub=758> (검색일자: 2025년 1월 8일).

United Nations | 국제연합.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세계인권선언 (1948). [온라인 자료]: <https://www.un.org/es/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검색일자: 2025년 1월 8일).

United Nations |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온라인 자료]: <https://www.ohchr.org/es/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international-covenant-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 (검색일자: 2025년 1월 8일).

Ngũgĩ wa Thiong'o | 응구기 와 시옹오. *Shifting the Centre: The Fight for Cultural Freedoms* / 중심의 이동: 문화적 자유를 위한 투쟁 (2017). Barcelona, Rayo Verde.

Warwick Commission on the Future of Cultural Value | 워릭 위원회. *Enriching Britain: Culture, Creativity and Growth* / 영국을 풍요롭게 하기: 문화, 창의성, 성장 (2015). University of Warwick. [온라인 자료]: https://warwick.ac.uk/research/warwickcommission/futureculture/finalreport/warwick_commission_report_2015.pdf (검색일자: 2025년 1월 8일).

Raymond Williams | 레이먼드 윌리엄스. "Culture is Something Extraordinary" / '문화란 특별한 것인가' (1958), in *The Raymond Williams Reader* (2001). Wiley & Sons.

니산트 샤, 박사

Aroyo, L. & Welty, C. | 아로요, L. & 웰티, C. (2015). 'Truth is a lie: Crowd truth and the seven myths of human annotation' / 진실은 거짓이다: 군중 진실과 인간 주석의 일곱 가지 신화'. *AI Magazine*, 36(1), 15-24.

Barabasi, A. L. | 바라바시, A. L.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 연결: 네트워크의 새로운 과학. Perseus Publishing.

Castelvecchi, D. | 카스텔베키, D. (2016). 'Can we open the black box of AI? / 우리는 AI의 블랙박스를 열 수 있는가?' *Nature*, 538, 20-23. doi:10.1038/538020a

Chun, W. H. K. | 천 웬디 후이 경. (2021). *Discriminating Data: Correlation, Neighborhoods, and the New Politics of Recognition* / 차별하는 데이터: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정의 정치. MIT Press.

Future of Life | 미래의 삶 연구소. (2023). 'Pause Giant AI Experiments: An Open Letter' / 대규모 AI 실험을 중단하라: 공개 서한'. Future of Life Institute. [온라인 자료]: <https://futureoflife.org/open-letter/pause-giant-ai-experiments/> (검색일자: 2024년 12월 17일)

Ganesh, M. I. | 가네쉬, M. I. (2020). 'The ironies of autonomy' / 자율성의 역설'.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7, 157.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057/s41599-020-00646-0> (검색일자: 2024년 12월 17일)

Juhasz, A., Langlois, G., & Shah, N. | 유하스, A., 랑글루아, G., & 샤, N. (2020). *Really Fake* / 정말 가짜.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Leslie, D. | 레슬리, D. (2020). *Understanding bias i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 안면 인식 기술의 편향 이해. The Alan Turing Institute.

Noble, S. | 노블, S. (2012). 'Missed Connections: What Search Engines Say about Women' / 놓친 연결: 검색 엔진이 여성에 대해 말하는 것'. *Bitch magazine*, 12(4): 37-41. [온라인 자료]: https://safiyaunoble.files.wordpress.com/2012/03/54_search_engines.pdf (검색일자: 2024년 12월 17일)

Ridgway, R. | 리지웨이, R. (2023). 'Deleterious consequences: How Google's original sociotechnical affordances ultimately shaped 'trusted users' in surveillance capitalism' / 해로운 결과: 구글의 원래 사회기술적 역량이 감시 자본주의에서 '신뢰받는 사용자'를 형성한 방식'. *Big Data & Society*, 10(1).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177/20539517231171058> (검색일자: 2024년 12월 17일)

Rieder, B., Peeters, S., & Borra, E. | 리더, B., 피터스, S., & 보라, E. (2022). 'From tool to tool-making: Reflections on authorship in social media research software / 도구에서 도구 제작으로: 소셜 미디어 연구 소프트웨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성찰'. *Convergence*, 30(1), 216-235.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177/13548565221127094> (검색일자: 2024년 12월 17일)

Seaver, N. | 시버, N. (2019). 'Knowing Algorithms' in Vertesi, J., & Ribes, D. (eds.) *digitalSTS: A field guide for science & technology studies / 알고리즘을 아는 것*.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ah, N., Rajadhyaksha, A., & Hasan, N. | 샤, N., 라자다크샤, A., & 하산, N. (2022). *Overload, Excess, Creep: An Internet from India / 과부하, 과잉, 잠식: 인도의 인터넷*. Leftword Books / INC Press.

Van den Hoven, J., Lokhorst, G. J., & Van de Poel, I. | 반 덴 호벤, J., 로크호르스트, G. J., & 반 데 포엘, I. (2012). 'Engineering and the Problem of Moral Overload / 공학과 도덕적 과부하의 문제'. *Sci Eng Ethics*, 18, 143-155.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007/s11948-011-9277-z> (검색일자: 2024년 12월 17일)

Yuan, L. et al. | 위안, L. 외. (2022). 'In situ bidirectional human-robot value alignment / 현장 기반 양방향 인간-로봇 가치 정렬'. *Sci. Robot.*, 7.

이준, 공학박사

AMSAT-UK | AMSAT-UK. (n.d.). OSSI 1 | OSSI-1. [온라인 자료]: <https://amsat-uk.org/satellites/non-operational/ossi-1/> (검색일자: 2025년 1월 15일)

ART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 2023 Local Arts Education Casebook: From the Local Community, Discovering Answers to the Sustainability of Arts Education | 2023 지역 예술교육 사례집: 지역 공동체로부터 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발견하다. 서울: ARTE.

Choi, J. | 최J. (2020). [Herald Review] 'BTS and ARMYs virtually yet strongly connected in 'Map of the Soul: ON:E'' | [헤럴드 리뷰] 'BTS와 아미, '맵 오브 더 소울: ON:E'에서 가상으로도 강하게 연결되다'. *Korea Herald*. [온라인 자료]: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2448037> (검색일자: 2025년 1월 12일)

JFAC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제주문화예술재단. (2020). Final Report on the 2020 Creative Arts Education Lab Support Project | 2020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주: JFAC.

Lee, Y. S. | 이예승. (n.d.). Ye Seung Lee's Art Space | 이예승의 아트 스페이스. [온라인 자료]: <http://yeseunglee.net/> (검색일자: 2025년 1월 15일)

Nanosats Database | 나노위성 데이터베이스. (2023). OSSI-1 Spacecraft | OSSI-1 우주선. [온라인 자료]: <https://www.nanosats.eu/sat/ossi-1> (검색일자: 2025년 1월 15일)

Song, H. | 송호준. (2019). ossicode (OSSI) | 오씨코드(OSSI). [온라인 자료]: <https://github.com/ossicode> (검색일자: 2025년 1월 15일)

Wikipedia | 위키백과. (2024). OSSI-1 | OSSI-1. [온라인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OSSI-1> (검색일자: 2025년 1월 15일)

XSFM | XSFM. (2014). 118a: The Penalty of Life | 118a: 삶의 대가. [온라인 자료]: <https://youtu.be/5X8PH29R1ps?si=pcZJvAMh0TPlrMmw> (검색일자: 2025년 1월 15일)

Yoon, J., Lee, Z., & Lee, J. | 윤J., 이Z., 이J. (2024). Research Report on Developing Monitoring Systems for “The More, The Better” | 《다다익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구 보고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사라 압두 부슈라

Gebremichael, N. | 게브레미카엘, N. (2022). ‘But Hearts Did Not Go Dry! Oral Memories of the 1977 Famine in Ethiopia | 그러나 가슴은 메마르지 않았다! 1977년 에티오피아 기근에 대한 구술 기억’. Transition, no. 133, 97–111.

Gebreyesus, R. & Wey, T. | 게브레예수스, R. & 웨이, T. (2021). ‘The African Scramble | 아프리카 쟁탈전’. Sandwich Magazine, Winter 2021.

Glissant, E. | 글리상, E. (1997). Poetics of Relation | 관계의 시학. Translated by Betsy Wing.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oodman, N. | 굿맨, N. (1978). Ways of Worldmaking | 세계 창조의 방식들. Hackett Publishing Company.

Le Guin, U.K. | 르 귄, U.K. (2024). The Carrier Bag Theory of Fiction | 소설의 캐리어 가방 이론. Terra Ignota.

Tlostanova, Madina, & Walter D. Mignolo | 틀로스타노바, M. & 미놀로, W. D. (2021). ‘On Other Possibilities for Philosophy and Humanity | 철학과 인간성을 위한 대안적 가능성들’. EastEast. [온라인 자료]: <https://www.easteast.world/en/posts/84>. (검색일자: 2024년 12월 27일)

Sakiya Foundation | 사키야 재단. Homepage |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sakiya.org/>. Accessed 18 December 2024. (검색일자: 2024년 12월 18일)

Sarr, F. | 사르, F. (2020). Afrotopia | 아프로토피아. Translated by Drew Burk and Sarah Jones-Boardma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Vawda, H. | 바우다, H. (2024). ‘Artistic Mizan | 예술적 미잔’. Foundation for Spirituality and the Arts. [온라인 자료]: <https://fsa.art/program/artistic-mizan/>. (검색일자: 2024년 12월 27일)

마우리시오 델핀

APOC | 페루 문화단체 연합 “Agenda de Incidencia Compartida (Segunda Versión) | 공동 옹호 의제 (제2판)” (2019). Alianza Peruana de Organizaciones Culturales. [온라인 자료]: <https://www.unesco.org/creativity/en/policy-monitoring-platform/peruvian-alliance-cultural-organizations-apoc>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Arnstein, S. R. | 아른스타인, S.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 시민 참여의 사다리” (1969).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080/01944366908977225>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Bahr, S. | 바흐, S. “Is New York’s Arts Diversity Plan Working? It’s Hard to Tell | 뉴욕시 예술 다양성 증진 계획의 효과, 그 판단의 어려움” (2020, August 26).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자료]: <https://www.nytimes.com/2020/08/26/arts/design/diversity-new-york-culture-plans.html>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Belfiore, E. | 벨피오레, E. “Whose cultural value? Representation, power and creative industries | 누구의 문화적 가치인가? 표현, 권력, 창의 산업” (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6(3), 383-397. [온라인 자료]: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286632.2018.1495713>.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Brown, W. | 브라운, W. “Undoing the Demos: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 민주주의 해체: 신자유주의의 은밀한 혁명” (2015). MIT Press.

Beirak, J. | 베이라크, J. “Cultura ingobernable: De la cultura como escenario de radicalización democrática y de las políticas que lo fomentan | 통제불가의 문화: 민주적 급진화의 무대로서의 문화와 이를 조성하는 정책들” (2022). Editorial Ariel.

Campagna, D. | 캠페냐, D. “Implementing the Human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Trends and Perspectives of Inclusive Cultural Empowerment | 문화생활 참여의 인권 실현: 포괄적 문화 역량 강화의 경향과 전망” (2017). Peace Human Rights Governance, 1(2), 169-193.

Chilvers, J., Pallett, H., & Hargreaves, T. | 칠버스, J., 팔레트, H., 하그리브스, T. “Rethinking energy participation as relational and systemic: Scoping note (Version 1) | 관계적·체계적 관점에서 본 에너지 참여 재고: 개요 노트 (버전 1)” (2015, July). The UK Energy Research Centre.

Chow, A. | 초우, A. “Artists in NYC’s low-income neighborhoods push city to deliver on arts equity | 뉴욕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예술가들, 예술 형평성 실현을 요구하다” (2017, September 19). City Limits. [온라인 자료]: <https://citylimits.org/2017/09/19/artists-in-nycs-low-income-neighborhoods-push-city-to-deliver-on-arts-equity/>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CreateNYC | 뉴욕시 문화정책 계획 “CreateNYC | 뉴욕시 문화정책 계획” (2017). [온라인 자료]: <https://createnyc.cityofnewyork.us/>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Delfin, M. | 델핀, M. “The promise of cultural networks in Latin America: Towards a research framework for the study of region-specific cultural network ecosystems |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네트워크 가능성: 지역 특화 문화 네트워크 생태계 연구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며” (2012). Cultural Trends, 21(3), 239-248.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080/09548963.2012.698556>.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Sofia Donoso | 도노소, 소피아. (2016). 『사회운동이 민주화의 힘이 될 때: 칠레 학생운동의 정치적 영향』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Global Democracy Since 2011: New Perspectives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Vol. 39),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Leeds, pp. 167-196.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108/S0163-786X20160000039008>. (검색일자: 2025년 3월 25일)

Gaudry, A. | 고드리, A. “Insurgent Research | 저항하는 연구” (2011). Wicazo Sa Review, 26(1), 113-136.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5749/wicazosareview.26.1.0113>.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UNESCO | 유네스코 “Opening up cultural governance through civil society participation |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개방” (2022). In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Addressing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117-137.

뒤팽-메나르, 펠릭스(Félix Dupin-Meynard), & 네그리에, 엠마누엘(Emmanuel Négrier) (편집). (2022). 『유럽의 문화정책: 참여적 전환?』 KEA 유럽 사무국(KEA European Affairs).

Yangyang Fan | 판, 양양. (2024). 『공공 조직에서의 책임성: 체계적 문헌 검토와 향후 연구 과제』 Public Organization Review. [온라인 자료]:<https://doi.org/10.1007/s11115-024-00792-y> (검색일자: 2024년 11월 15일)

Hyperallergic | 하이퍼알러제틱. (2017년 9월 7일). 『시민 문화 계획이 CreateNYC에 응답하다. [온라인 자료]: <https://hyperallergic.com/401477/the-peoples-cultural-plan-responds-createnyc/> (검색일자: 2024년 6월 14일)

IAP2 | 국제공공참여협회. (2024). 『핵심 가치, 윤리, 스펙트럼 – 공공 참여의 3대 기둥』 [온라인 자료]: <https://www.iap2.org/page/pillars>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IPEA | 응용경제연구소. (2010). 『문화정책과 상징적 생산: 브라질에서의 문화재 생산과 소비에 대한 분석』 [온라인 자료]: https://repositorio.ipea.gov.br/bitstream/11058/15965/1/BPS_31_NPS_2_politica_cultural_e_producao.pdf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레첼트, 엘리시아(Elysia Lechelt), & 커닝햄, 말라이카(Malaika Cunningham). (2020). 『문화정책 수립에서의 참여 정치』 Conjunctions. Transdisciplinary Journal of Cultural Participation, 7(2). [온라인 자료]: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6073798_The_Politics_of_Participation_in_Cultural_Policy_Making.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Guillermo Martín Lescano | 레스카노, 기예르모 마르틴. (2024). “페루: 미래는 오늘이다.” 『몬디아컬트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문화정책의 미래(Mondiacult y Después: El Futuro de las Políticas Culturales en América Latina)』 (바르발루 Barbalho, A. 편집) 에서 발췌. RGC Libros.

Carmen Malena | 말레나, 카르멘. (2015). 『시민 공간 측정 개선』 투명성 및 책임성 이니셔티브(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 보고서.

S. M. C | 멜루. (2024). 『우리가 예고된 것에 부응하고 있는가?: 브라질 문화정책의 제도화 전망(Estamos à altura do que se anuncia? : Horizontes de institucionalização nas políticas culturais brasileiras)』 문화정책리뷰 (Políticas Culturais Em Revista), 17(1), 81–104.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9771/pcr.v17i1.57960>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Ministerio de Cultura del Perú, MINCUL | 페루 문화부. (2020). 『2030년까지의 국가 문화정책』 [온라인 자료]: <https://www.gob.pe/institucion/cultura/informes-publicaciones/841303-politica-nacional-de-cultura-al-2030>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MINCUL | 페루 문화부. (2020). 『최고결의 제008-2020-MC호』 . 페루 문화부, 리마.

MINCUL | 페루 문화부. (2023). 『장관결의 제000119-2023-MC호』 . 페루 문화부, 리마.

People's Cultural Plan, PCP | 시민 문화 계획. (2017). 『시민 문화 계획』. [온라인 자료]: <https://www.peoplesculturalplan.org/> (검색일자: 2024년 6월 14일)

Ixchel Pérez-Durán | 페레스-두란, 익셀. (2024). 『공공행정에서의 책임성 연구 25년: 저자, 주제, 방법론, 미래 동향 (Twenty-five years of accountability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Authorship, themes, methods, and future trends)』 국제행정학리뷰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90(3), 546–562.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177/00208523231211751>.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Mark S. Reed | 리드, 마크S. (2008). 『환경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문헌 리뷰(Stakeholder particip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생물학적 보전(Biological Conservation), 141(10), 2417–2431. [온라인자료]: <https://doi.org/10.1016/j.biocon.2008.07.014> (검색일자: 2024년12월14일)

Bhavna Sharma | 샤르마, 바브나. (2008). 『목소리, 책임성, 시민 참여: 개념적 개요 (oice, accountability and civic engagement: A conceptual overview)』 오슬로 거버넌스 센터(Oslo Governance Centre) 의뢰 보고서, 1-33.

Zachary Small | 스몰, 재커리. (2017년 7월 19일). 『뉴욕, 최초의 문화 계획 발표했지만, 비평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지 못할 것이라 지적 (New York unveils its first-ever cultural plan, but critics say it won't stop gentrification)』 Artnet News. [온라인 자료]: <https://news.artnet.com/art-world-archives/new-york-cultural-plan-arts-gentrification-1027745>.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스트링어, 린제이 C.(Lindsey C. Stringer), 프렐, 크리스티나(Christina Prell), 리드, 마크 S.(Mark S. Reed), 후바첵, 클라우스(Klaus Hubacek), 프레이저, 에드워드 D.G.(Edward D.G. Fraser), 더길, 앤드류 J.(Andrew J. Dougill). (2006).

탈로, 코시모(Cosimo Talò), 만나리니, 테리(Terri Mannarini). (2015). 『참여 측정: 참여 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Measuring Participa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the Participatory Behaviors Scale)』 Soc Indic Res, 123(3), 799–816.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007/s11205-014-0761-0>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UNDP | 유엔개발계획. (2023년 3월 21일).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기관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증가 (Whom do we trust? Less in institutions and more in communities in LAC)』 [온라인 자료]: <https://www.undp.org/latin-america/blog/whom-do-we-trust-less-institutions-and-more-communities-lac>(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Guillermo Valdizán | 발디산, 기예르모. (2024). 『카타타이: 페루 문화정책의 역사 Katatay. Políticas Culturales en la Historia del Perú 1821-2023』 리마: 헤랄도스 에디토레스(Heraldos Editores).

Guillermo Valdizán | 발디산, 기예르모. (2024). 『페루 독재 연합에 의한 문화적 권리 침해 연대표 (Cronología de las vulneraciones a los derechos culturales de la coalición dictatorial en Perú) 2022-2024』 리마: 아소시아시온 누에스트로 수르(Asociación Nuestro Sur).

Wallner, J. | 월너, J. “Legitimacy and public policy: Seeing beyond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performance | 정당성과 공공정책: 효과성, 효율성, 성과를 넘어” (2008). Policy Studies Journal, 36(3), 421–443. [온라인 자료]: <https://doi.org/10.1111/j.1541-0072.2008.00275.x>.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웬플러, B, 터치턴, M. (2017). 『참여예산제: 채택과 변형 (Participatory Budgeting: Adoption and Transformation)』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사회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59(3), 66–92. [온라인 자료]: [https://experts.boisestate.edu/files/558796/wampler_%20brian%20\(2017\)%20Participatory%20Budgeting%20-%20PUB.pdf](https://experts.boisestate.edu/files/558796/wampler_%20brian%20(2017)%20Participatory%20Budgeting%20-%20PUB.pdf). (검색일자: 2024년 12월 14일)

웨이블, C M.(C. M. Weible) (편집). (2023). 『정책 과정 이론(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테일러 앤 프랜시스(Taylor & Francis).

파울라 카, 하니코 테 쿠라파

RNZ | 라디오 뉴질랜드. “A step in the wrong direction: Students call upon government to restore te reo Māori teacher training funding | 퇴행적 전환: 학생들, 정부에 테 레오 마오리 교사 훈련 예산 복원을 촉구”[온라인 자료]: <https://www.rnz.co.nz/news/te-manu-korihi/529266/a-step-in-the-wrong-direction-students-call-upon-government-to-restore-te-reo-maori-teacher-training-funding?> (검색일자: 2024년 12월 25일).

E-Tangata | 에탕가타. “Be Māori, all day, every day | 마오리로서 매일, 온종일 살아가기” [온라인 자료]: <https://e-tangata.co.nz/comment-and-analysis/be-maori-all-day-every-day/> (검색일자: 2025년 1월 12일).

E-Tangata | 에탕가타. “Fast track to Māori exclusion | 마오리 배제를 가속화하는 정책” [온라인 자료]: <https://e-tangata.co.nz/comment-and-analysis/fast-track-to-maori-exclusion/> (검색일자: 2024년 12월 25일).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 문화유산부. “God Defend New Zealand / Aotearoa | 뉴질랜드 국가 ‘하느님, 뉴질랜드를 지켜 주소서’” [온라인 자료]: <https://www.mch.govt.nz/our-work/flags-anthems-and-emblems/national-anthems/god-defend-new-zealand-aotearoa> (검색일자: 2025년 1월 12일).

Newsroom | 뉴스룸. “Govt to change or remove Treaty of Waitangi provisions in 28 laws | 정부, 28개 법률에서 와이탕이 조약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삭제 추진” [온라인 자료]: <https://newsroom.co.nz/2024/10/14/govt-to-change-or-remove-treaty-of-waitangi-provisions-in-28-laws/> (검색일자: 2024년 12월 25일).

New Zealand | 뉴질랜드 공식 관광 웹사이트. “Haka | 하카” [온라인 자료]: <https://www.newzealand.com/nz/feature/haka/> (검색일자: 2025년 1월 12일).

Toitū te Tiriti | 토이투 테 티리티. “Hīkoi mō te Tiriti 2024 Information Page | 2024년 히코이 모 테 티리티 정보 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toitutetiriti.co.nz/pages/hikoi-mo-te-tiriti-2024-information-page> (검색일자: 2025년 1월 12일).

E-Tangata | 에탕가타. “Hīkoi mō te Tiriti: Walking into the Future | 히코이 모 테 티리티: 미래를 향한 행진” [온라인자료]: <https://e-tangata.co.nz/reflections/hikoi-mo-te-tiriti-walking-into-the-future/> (검색일자: 2025년1월12일).

Waikato-Tainui | 와이카토-타이누이 부족. “Kiingitanga | 키잉이탕가” [온라인 자료]: <https://waikatotainui.com/about-us/kiingitanga/> (검색일자: 2025년 1월 12일).

Te Taura Whiri i te Reo Māori | 마오리어 위원회. “Māori place names | 마오리 지명” [온라인 자료]: https://en.tetaurawhiri.govt.nz/maori_place_names (검색일자: 2024년 12월 25일).

Stats NZ | 뉴질랜드 통계청. “National and subnational period life tables 2017–2019 | 2017-2019년 국가 및 지역별 기대수명 표” [온라인 자료]: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national-and-subnational-period-life-tables-2017-2019> (검색일자: 2024년 12월 25일).

RNZ | 라디오 뉴질랜드. “Takutai Moana Act breaches Treaty principles – Waitangi Tribunal | 타쿠타이 모아나 법, 와이탕이 조약 원칙 위반 – 와이탕이 재판소 판결” [온라인 자료]: <https://www.rnz.co.nz/news/national/499580/takutai-moana-act-breaches-treaty-principles-waitangi-tribunal> (검색일자: 2024년 12월 25일).

RNZ | 라디오 뉴질랜드.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Hīkoi mō te Tiriti and past hīkoi: more support from non-Māori | 히코이 모 테 티리티와 과거 행진의 가장 큰 차이점: 비마오리 인구의 지지율 증가” [온라인 자료]: <https://www.rnz.co.nz/news/on-the-inside/534466/the-biggest-difference-between-hikoi-mo-te-tiriti-and-past-hikoi-more-support-from-non-maori> (검색일자: 2025년 1월 12일).

Tupu.nz | 투푸 뉴질랜드. “What is Māori land? | 마오리 토지란 무엇인가?” [온라인 자료]: <https://www.tupu.nz/en/tuhono/about-maori-land-in-new-zealand/what-is-maori-land> (검색일자: 2024년 12월 25일).

마리추 G. 텔라노

Azahara, J. | 아자하라, J. (2021). ‘Art and Community Engagement: The Case of ‘Bayanihan Musikahan’ During COVID-19 | 예술과 지역사회 참여: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바야니한 무시카한’ 사례’. *Philippin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2, no. 1, 45-67.

Bautista, M. | 바우티스타, M. (2019). *Cultural Heritage in the Philippines: Traditio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 필리핀의 문화유산: 전통, 보존, 보호.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Benild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베닐데 지적재산권 사무소. Homepage |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ip.benilde.edu.ph/>. (검색일자: 2024년 12월 2일).

Constantino, R. | 콘스탄티노, R. (1975). *The Philippines: A Past Revisited* / 필리핀: 다시 보는 과거. Tala Pub. Services.

Department of Tourism,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필리핀 관광부. (2021). *A Celebration of Philippine Festivals* / 필리핀 축제 기념. [온라인 자료]: www.tourism.gov.ph/festivals/. (검색일자: 2024년 12월 2일).

Dizon, P. & Palileo, C. | 디존, P. & 팔릴레오, C. (2020). *Filipino Art in the 21st Century* / 21세기 필리핀 예술.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 필리핀 지적재산청. *Govt, Industry Bet on IP to Revitalize PH Textile Fashion* / 정부와 산업계, 지적재산권을 통한 필리핀 섬유 패션 활성화 추진. [온라인 자료]: <https://www.ipophil.gov.ph/news/govt-industry-bet-on-ip-to-revitalize-ph-textile-fashion/>. (검색일자: 2024년 12월 2일).

López, M. | 로페스, M. (2021). *Crafting Futures: The Role of Weaving in Contemporary Filipino Identity* / 미래를 직조하다: 현대 필리핀 정체성에서 직조의 역할.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2020). *Schools for Living Traditions: An Overview* / 살아있는 전통 학교: 개요. [온라인 자료]: www.ncca.gov.ph/about-culture-and-arts/in-focus/schools-for-living-traditions-an-overview/. (검색일자: 2024년 12월 2일).

Reyes, E. | 레예스, E. (2010). 'Filipino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 필리핀 원주민 지식 체계.' Philippine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2, no. 1.

Robles, R. S. | 로블레스, R. S. (2012). 'Globalization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에서의 세계화와 문화유산.' Asian Studies Review, vol. 36, no. 2, 157-170.

Santos, E. | 산토스, E. (2020).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y in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Case Studies from the Philippines / 문화유산 보존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 필리핀 사례 연구.' Asian Studies Review, vol. 44, no. 3, 399-415.

Sullivan, O. & Blum, R. | 설리번, O. & 블룸, R. (2020). 'Cultural Heritage Education: A Pathway to Inclusivity and Community Engagement / 문화유산 교육: 포용성과 지역사회 참여로 가는 길.'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6, no. 3, 355-370.

SunStar | 선스타. *When Is Fashion Too Much?* / 패션이 지나칠 때는 언제인가? [온라인 자료]: <https://www.sunstar.com.ph/davao/feature/when-is-fashion-too-much>. (검색일자: 2024년 12월 2일).

Torres, A. | 토레스, A. (2021). 'Resilience in the Face of Crisi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Filipino Creative Sector / 위기 속의 회복력: 코로나19가 필리핀 창의 산업에 미친 영향.' MA thesis, University of Santo Tomas.

라르스 에베르트

Pele Association | PELE 협회 "Laboratório de Arte e Cidadania (LAC) / 예술과 시민권 실험실". [온라인 자료]: <https://www.apele.org/pt/projetos-em-curso/lac/>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Artistic Freedom Initiative | 예술적 자유 이니셔티브 "Hungary Systematic Suppression / 헝가리의 체계적 탄압". [온라인 자료]: https://artisticfreedom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22/03/Artistic-Freedom-Monitor_Hungary_Systematic-Suppression.pdf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Euronews | 유로뉴스 "As France slashes its culture budget, how do other European countries compare? / 프랑스가 문화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온라인 자료]: <https://www.euronews.com/culture/2024/04/18/as-france-slashes-its-culture-budget-how-do-other-european-countries-compare>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Euronews | 유로뉴스 "Berlin announces huge €130 million cuts to culture budget / 베를린, 문화 예산 1억 3천만 유로 대규모 삭감 발표". [온라인 자료]: <https://www.euronews.com/culture/2024/11/27/berlin-announces-huge-130-million-cuts-to-culture-budget>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Culture Action Europe | 문화행동유럽 “*State of Culture Report / 문화 현황 보고서*” (2024). 브뤼셀: 문화행동유럽.

Ebert, L. & Umlauf, J. (Eds.) | 에버트, L. & 움라우프, J. (편집) “*European Academy of Participation: Benchmarks, reflections and challenging practice on the interface between academia and the creative sector / 유럽 참여 아카데미: 학계와 창조 산업 간의 기준, 성찰 및 실천 과제*” (2023). 함부르크: AVINUS.

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Migration and Migrant Population Statistics / 이주 및 이민자 인구 통계*”. [온라인 자료]: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Migration_and_migrant_population_statistics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Culture as a Public Good / 공공재로서의 문화*” (2024). 시드니: IFACCA.

Kaaitheater | 카이극장 “Homepage |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kaaitheater.be/en>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Portuguese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포르투갈 의장국 “*Porto Santo Charter / 포르토 산토 헌장*” (2021): [온라인 자료]: <https://portosantocharter.eu/the-charter/>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The Guardian | 가디언 “*Slovakia purges heads of national theatre and gallery in arts crackdown / 슬로바키아, 예술 탄압으로 국립 극장 및 미술관장 해임*”. [온라인 자료]: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aug/10/slovakia-purges-heads-of-national-theatre-and-gallery-in-arts-crackdown>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Sternfeld, N. | 스타네펠트, N. “*Belonging to the Contact Zone / 접촉 지대에 속한다는 것*” (2017). 런던: 플루토 프레스(Pluto Press).

DutchNews.nl | 더치뉴스 “*Tax hike will ‘cut and burn’ through cultural sector / 세금 인상이 문화 부문을 ‘말살’할 것*”. [온라인 자료]: <https://www.dutchnews.nl/2024/09/tax-hike-will-cut-and-burn-through-cultural-sector/>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RFE/RL |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 “*The impact of theater protests in Sofia / 소피아 연극 시위의 영향*”. [온라인 자료]: <https://www.rferl.org/a/malkovich-sofia-shaw-theater-protests-nationalists-november-2024/33194350.html> (검색일자: 2024년 12월 12일).

Thompson, N. | 톰슨, N. “*Living as Form: Socially Engaged Art from 1991-2011 / 형식으로서의 삶: 1991-2011년 사회적 개입 예술*” (2012). MIT 프레스.

마르셀라 플로레스 멘데스

Beck, H. | 벡, H. (2017). *Otra modernidad es posible. El pensamiento de Ivan Illich / 또 다른 근대는 가능하다: 이반 일리치의 사상*. Malpaso Ediciones.

Data Center Map | 데이터 센터 맵. (2021). *Data Center Map / 데이터 센터 맵*. [온라인 자료]: 검색일자: <https://www.datacentermap.com/> (검색일자: 2025년 1월 3일).

Hui, Y. | 유크 후이. (2020). *Fragmentar el futuro. Ensayos sobre tecnodiversidad* / 미래를 분절하기: 기술다양성에 대한 에세이. Caja Negra.

Illich, I. | 이반 일리치. (2006). *Obras Reunidas* / 이반 일리치 전집. Fondo de Cultura Económica.

Interview with Maria Ptqk | 마리아 Ptqk 인터뷰. (2023). SoundCloud. . [온라인 자료]: <https://soundcloud.com/ccd-radio/maria-ptqk> (검색일자: 2025년1월 3일)

Quijano, A. | 아니발 키하노. (2023). *Ensayos sobre en torno a la colonialidad del poder* / 권력의 식민성에 관한 에세이. Del Signo E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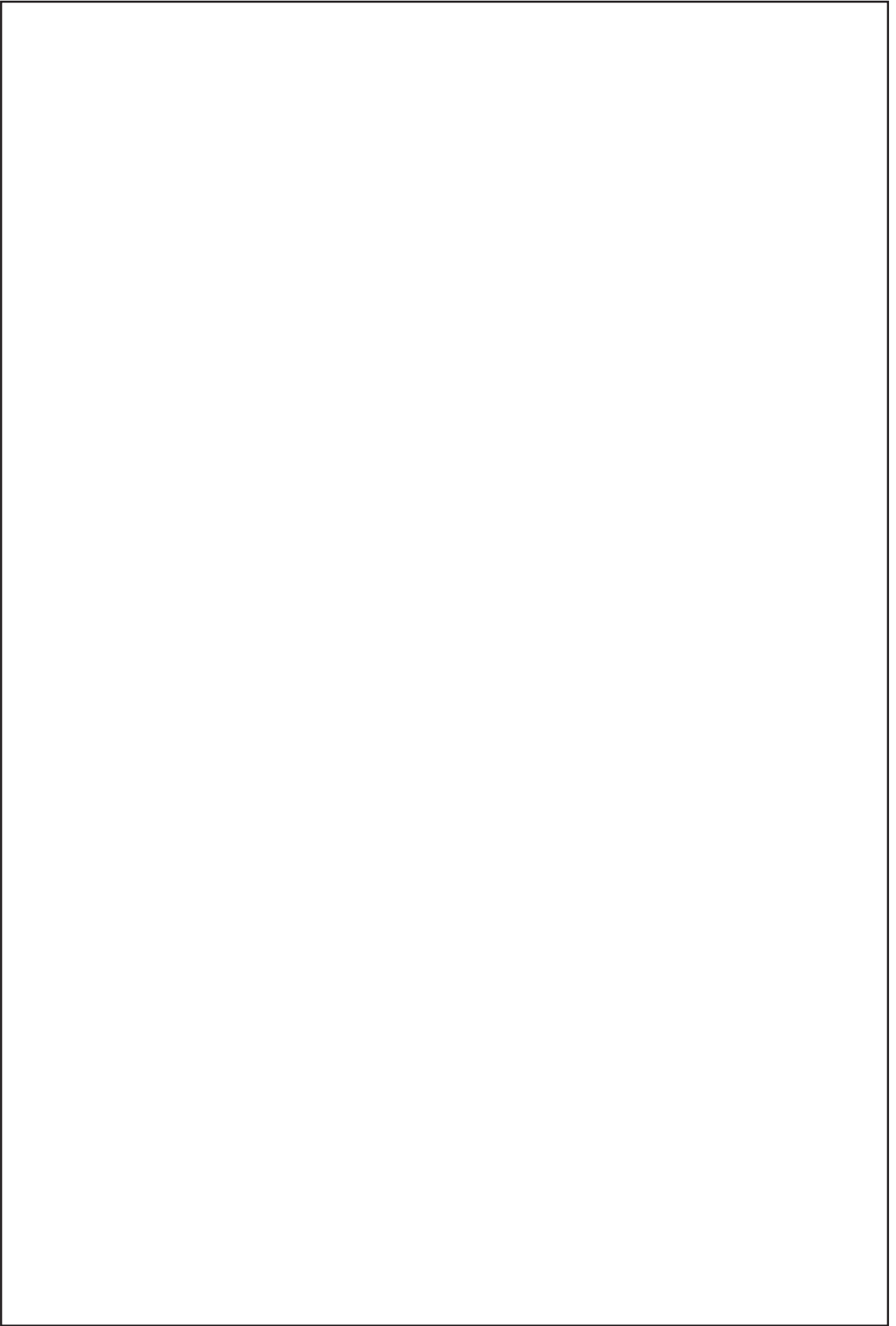
Rendueles, C. | 렌두엘레스, C. (2024). *Pánico moral y ciberfetichismo catastrófico* / 도덕적 공황과 재난적 사이버 페티시즘. *Journal 404 from the Center for Digital Culture*. [온라인 자료]: <https://centroculturadigital.mx/revista/panico-moral-digital-y-ciberfetichismo-catastrofico> (검색일자: 2024년 12월 20일).

Ricaurte, P. | 리카우르테, P. (2022). *Descolonizar y despatriarcalizar las tecnologías* / 기술의 탈식민화와 탈가부장화. *Centro de Cultura Digital*. [온라인 자료]:<https://centroculturadigital.mx/descargable/descolonizar-y-despatriarcalizar-las-tecnologias> (검색일자: 2024년 12월 20일).

Santos, B. | 산토스, B. (2019). *Curación como tecnología* / 치유로서의 기술. Based on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the Amazonia. City of Bogota Mayor's Office.

Notes







artsummit.org
#ArtsummitKorea